



louisvuitton.com

The Spirit of Travel

LOUIS VUITTON

Style

조선일보

JUNE 2018
vol.174



Cartier

PANTHÈRE DE CARTIER COLLECTION

GUCCI

#GucciDansLesRues

gucci.com





BURBERRY

Alhambra, celebrating luck since 1968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30



29



표지에 등장한 시계는 더블 투어 브레이슬릿과 함께 한층 여성스러운 실루엣으로 재탄생한 팬더드 카르띠에 워치. 주얼리처럼 화려한 자태로 시선을 사로잡는 팬더드 카르띠에의 새로운 디자인을 오는 6월부터 오직 카르띠에 매점 창문에서만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1566-7277



16

12



- 14 **현대미술과 과학기술의 환상적 동맹은 가능할까?**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추구하는 예술에서 과학기술은 좋은 도구이자 소재이며, 보다 관객 참여적이고 생동감 소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는 장점을 선사한다. 예술과 과학기술의 21세기 동맹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
- 16 **HYPER FEMININE** 팬디 2018 프리폴(pre-fall) 컬렉션을 매력적인 에디티드로 풀어낸 김희선의 트윈 룩.
- 24 **ICONIC MOTIF** 팬디의 FF 로고는 2018년을 맞아 사랑형 버전으로 '재고재(reload)'되어 새로운 컬렉션으로 태어났다. 패션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팬디 FF 리로드 컬렉션을 소개한다.
- 26 **FIND YOUR TREASURE** 팬디의 창조 정신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역동적인 젊음의 에너지가 상충하는 도시 베를린에서도 빛을 발했다. 젊은 세대에게 보물 같은 존재가 될, '트레저(Treasure)' 컬렉션과 함께
- 28 **WHEN ELEGANCE MEETS ART** 베이징에서 반클리프 아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패트리오널 전시가 오는 8월 5일까지 개최된다. 반클리프 아펠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다.
- 29 **FAST FORWARD MEN**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유쾌한 패스타일. 지난 4월 상하이에서 열린 에르메스의 행사는 과거와 미래가 어울려 한 편의 멋진 판타지 무비를 보는 듯했다.
- 30 **BEST WOOL IN THE WORLD**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자부심을 고스란히 담은 에르메네제일도 재킷의 재킷과 수트가 의미하는 최상의 가치는 무엇일까? 호주 이마데일의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시드니에서 열린 엑스트라파인 울 트로피 시상식에 다녀왔다.
- 32 **COOL WALK** 1백만원 상당의 라궁화에 웨어링 리스트가 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운동화'의 모습을 한 쿠티르 라궁화가 높은 가격대에도 인기 절정이다. 없어서 못 파는 2018 쿠티르 라궁화 컬렉션.
- 33 **SUMMER LADY**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 하나만 가볍게 입으면 되는 서머 드레스만큼 멋스럽고 시원한 옷도 없다. 럭셔리 하우스 네 곳의 감성을 타치한, 울어름 당신이 주목해야 할 여성 유펀스.
- 34 **EXPLORATION OF A NEW TERRITORY** 루이 비통 매장에서 남성성을 위한 향수를 선보인다. 매종의 수석 조향사 자크 카발리에 벨투뤼(Jacques Cavallier Belletrud)가 찾아 떠난 향기의 여정에 <스타일 조션일보>가 함께했다.
- 36 **AN EXQUISITE SENSE** 첫눈에 매료되는 남성의 강인한 매력을 향에 담았다.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선보이는 향수답게 매끄러우면서도 색다른 디자인이 돋보이는 '셀렉트(Select)'가 바로 그것!
- 37 **SMART SKINCARE** 피부에 불필요한 것은 말끔히 제거하고, 필요한 영양분은 속속 더해주는 CNP Rx의 PHA 듀오만 있다면 여배우의 투명 피부를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다.
- 38 **EDITOR'S PICK** 연이어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 중 <스타일 조션일보>가 추천하는, 꼭 써봐야 할 뷰티 리스트.

Style 조선일보

Issue.174 June 2018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어시스턴트 | 김은서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션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POSSESSION

Piaget.kr
 +82 (0)2 3449 5934

Jewel ARTISTIC SOUL

강렬하고도 매력적인, 마치 아트피스와 같은주얼리 컬렉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작은 원형 모티브를 다채 반복한 매달리는 부동 도르네르스 기적 미장 **반달리프 아젤**, 꽃을 모티브로 한 강렬한 매력의 자스트 영 글루 다블 브로이슬릿 22캐럿원대 **까르페에**, 로즈 골드 소재에 카르라인과 마르모르를 시용한 볼라리 볼라리 클라시 브로이슬릿 6캐럿원대 **볼라리**, 거품을 표현한 것처럼 유쾌한 피리 누벨라그 컬렉션 이어링 1캐럿원대 **까르페에**, 에데터 **베이진**

Hot spot GOOD LIVING

리빙 트렌드를 알고 싶거나 새로운 리빙 브랜드 소식이 궁금할 때 이곳부터 먼저 방문할 정도로, 늘 탁월한 선택을 통해 해외 유명 리빙 브랜드는 물론 보석잡이 숨겨진 국내 외 리빙 디자이너들의 아이템을 소개하는 리빙 편집숍 에이퍼픽스(APIX), 10년 전, 북유럽 디자인이 유행하기도 전부터 국내에 감각적인 북유럽 인테리어 제품을 소개했고, 지금도 루이스 폴센, 허인 말러 등 가전들이 남긴 작품과도 같은 조명, 가구와 생소하지만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이너 소품을 선보이며 국내 리빙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온라인 스텝(hpix.co.kr)을 비롯해 한남동과 개포동 소용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리빙 편집숍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는 에이퍼픽스가 기존 한남동 소용을 가까운 이태원으로 새롭게 이전해 리빙 마니아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마치 취향 좋은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한 것처럼 감각적으로 꾸민 한남동 매장에서는 에이퍼픽스를 통해 국내에 이름을 알린 덴마크 가구 브랜드 '볼라이(Bolia)'의 패브릭 소파를 비롯해 독일 바우하우스의 전통이 깃든 가구 브랜드 '텍타(Tecta)'의 제품도 만날 수 있다. 가구 외에도 선물용으로 좋은 키친웨어나 향초, 아자자(한 오브 제까지 모두 한차원에서 소용할 수 있다. 유명 해외 브랜드 외에도 국내 부부 아티스트 듀오가 만든 테이블웨어 브랜드인 '웨이브 테이블웨어(WAVE Tableware)', 장미꽃을 주요 소재로 아름다운 오브제를 만드는 '비인로그(BINLOGUE)', 산업 디자이너 이혜주 작가의 소 미니 스튜디오(SO MINI STUDIO)' 등 국내 신진 디자이너나 디자이너 스튜디오에서 선보이는 참신하고 예쁜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접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에이퍼픽스를 방문하게 되는 이유다. 자로로 하이엔드 의결은 리빙이라는 말이 있듯, 이전 인테리어와 리빙 아이템으로 그 사람의 취향과 지적 수준까지 가늠해볼 수 있는 시대다. 집안 분위기를 바꿔줄 에이퍼픽스의 센스가 담긴 작은 리빙 소품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깝까. 문의 070-4656-0175 에데터 권유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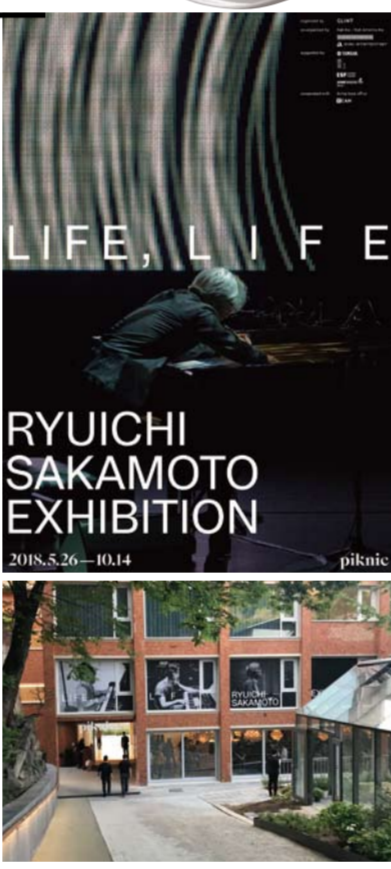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Space 남산밀 문화공간 피크닉(Piknic), 류이치 사카모토 특별전으로 첫인사

서울 남산 아래 자락에 수려한 풍경, 즐거운 마시, 내실 있는 콘텐츠를 이우르는 매력적인 문화 공간이 탄생했다. 회원동 골목 안쪽에 운치 있게 자리 잡은 피크닉(Piknic)이라는 이 공간은 전시 기획사 글린트(Glint)가 마련한 곳.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뤄진 주 건물에는 전시 공간과 함께 카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미술 갤러리 프가 운영하는 '제로 컴플렉스' 등이 들어서 있고, 건너편에는 허브 내음 가득한 유리 온실도 마주 앉아 있다. 루프톱에서 올라다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남산타워타워를 비롯해 짙은 녹음이 병풍처럼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발군이다. 소용 같은 휴식과 문화적 충전을 누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는 피크닉의 개관전은 한 국에도 팬층이 두꺼운 뮤지션 류이치 사카모토의 특별전. 대체로운 방식의 솔로 음악 활동은 물론이고 (미자막 황제), (레바넬트), (남한산상), (클미 바이 유어 내인) 등 주옥같은 영화의 음악감독으로 참여하면서 널리 명성을 떨쳐온 인물이다. <류이치 사카모토(Ryuichi Sakamoto): Life, Life>라는 이름을 단 이번 전시는 참신한 방식의 시청각 경험과 구성으로 많은 음악 팬을 사로잡은 (EOM: 침묵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이래 5년 만에 선보이는 규모 있는 음악 전시로, 뮤지션으로서만이 아니라 예술가, 사회운동가로서 류이치 사카모토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세계적인 영화감독 이피타봉 우라사타군이 작업한 영상 작품, 백남준과 함께 한 'Se Star Video'의 영상들, 이마무치 장보에센스타(YCAM)에서 작업한 대규모 미디어 설치작품 등 그가 직접 제작하거나 영감을 주고받은 다양한 협업 작품을 접할 수 있다. 또 때마침 다큐멘터리 영화 <류이치 사카모토: 코 다>도 6월 중 CGV 이트하우스를 비롯한 전국 예술 영화관에서 선보인다. 홈페이지 piknic.kr, 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9시, 일요일 오전 11시~오후 8시(월요일 휴관)



Beauty SMART HOME CARE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제모뿐 아니라 피부 탄력 증진에 힘쓸 시기가. 하지만 마사지 스파를 매년 방문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 잠들기 전 단 몇 분만 투자해도 눈에 띄게 달라질, 페이스부터 보디까지 관리해주는 홈케어 제품을 소개한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홈 제모 기기의 혁신, '실리콘 글라이드 익스프레스'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이 시기에 꼭 갖춰야 할 아이템이다. 울려볼 비키니를 입기 전에 팔다리, 겨드랑이에는 물론, 바지나 리넨까지 체온 없이 애교로운 피부로 관리해주는 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2주에 한 번씩 2개월 동안 꾸준한 관리해 볼 것(49만 원). LG전자의 뛰어난 하드웨어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LG 프라임 디미 LED 마스크', 그동안 피부 탄력 개선을 위해 마사지 기기를 부양하다 옮기며 직접 얼굴에 쓰여오던, 이 제품은 안경을 쓰듯 손쉽게 착용하면 하면 적색 LED 60개, 적외선 LED 60개가 동시에 피부를 방사시켜 각기 다른 깊이의 피부에 골고루 침투해, 투명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꿔준다. 특히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입을 볼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79만 원). 예민한 눈가를 위한 뷰티 디바이스도 있다. 바로 작고 귀여운 핸디형 '블리야 아이 리뉴 레이저'는 프락셔널 기술의 다이오드 레이저가 피부 속까지 조사되어 매일 2분씩 눈가 주위 피부에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사용하면 눈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49만 원). 그런가 하면, 고주파 열에너지와 빛에너지의 상승한 더블 레이저 리프팅으로 피부 근육 부위의 탄력을 끌어올리는 '메이크업 써모 웨이브 아이 리프트'도 함께 소개한다. 연약한 눈가 피부는 물론, 팔자 주름과 미간 등 탄력 손실이 큰 소용을 관리해 도란한 인상을 완성해줄 것이다(29만 원). 1대의 기기로 페이스부터 보디까지 케어할 수 있는 디바이스도 있다. 보디와 페이스 두 가지 모두로 작동되는 '인안 뷰티 RF 보디 케어스파 코어'로, 초음파, EMS, 고주파 동시 출력으로 셀룰라이트 & 체지방 감소와 탄력, 슬리밍 케어 효과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다(49만 원). 마지막으로 '필립스 사티엔 모노 제모' 기기는 특히 받은 마이크로 세라믹 디스크 헤드기가늘고 약한 체모까지 잡아내며, 핀셋 형태의 제모 시스템이 누워 있는 체모를 세워주어 깔끔하게 모근을 제거한다. 또 헤드 교체만으로 발 길질 전용 페디케어 링 헤드, 트리머 및 액세서일까지, 필요에 따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어 필수템이라 칭할 만하다(16만 원). 에데터 이지연

Exhibition (소년 김부연, 그가 바리본 아이)展

어린이의 그것처럼 해맑고 유쾌한 에너지를 지니는 김부연 작가의 예술 세계를 담은 회고전이 열린다. 2018 아트 조진 온스테이지(Art Chosun on Stage)의 세 번째 기획전인 (소년 김부연, 그가 바리본 아이)전이 오는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작고한 김부연 작가가 이루고자 했던 '사투'를 미학을 살펴보는 역시 회고전이다. 1969년 부산 출생인 김 작가는 1995년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한 이듬해 유학을 떠나 파리 8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면서 총 6회에 걸쳐 개인전을 열었다. 2007년 귀국해 국내에서도 작품 활동을 펼쳤으나, 2011년 할연암 편평을 받고 2년 뒤인 2013년 4월 20일 작고했다. 유학 시절 파울 클레와 장 뒤뷔페에게 영향을 받은 김 작가는 그림 그리는 행위를 유학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즐거운 놀이로 봤는데, 실제로 시루에 갇히지 않고 아이처럼 자유롭고 순수한 창작 활동을 해 갔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직접 전화를 대변하는 '아이'라는 큰 주제 아래 초기부터 생애 마지막 작품까지 이우른 30여 점을 선보인다. '아이'는 단어의 전혀 다른 세 가지 의미, '눈, eye)를 담은 세 가지 색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색션'은 낱그대로의 예술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고 미술의 원점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작가의 세계관을 다루고, '눈'은 아이 같은 천진한 시선이 묻어 있는 작품의 선, 형태, 색깔 등 작품 기법과 소재에 집중하며, 'eye'는 작가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남편, 한 아이의 이별인 자신의 삶을 소년 김부연의 순수한 시선으로 담아낸다. 홈페이지 edu.chosun.com/art 문의 02-724-7816



RICHARD MILLE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 Didier Gourdon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비키니 세트. 컬러풀한
원피스. 41,299원. **보타가**.

클러치 알록 인서트 비에
손을 넣어 휴대하기
편안한, 스트라이프
리본 장식 여성용 클러치.
30x18cm,
80만원 **바버리**.

내려갈 자사기 비친 애플
스트랩 액세서리를 30만원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베이지나 화이트 라본 소재의
리본로 통과 함께 매달려
멋스러운 벨로 프러임
신클로즈 기어 미팅
셀만스.

듀얼 휠을 적용해
이동 시 안전성을
높인, 시원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7R 스프링
스카이블루 캐리어.
46x70cm,
1백15만원 **하트만**.

샤워실트 유량 장
어댑터. 15만원

화이팅 티셔츠나
셔츠에 어울리는 요인트가
도어줄 남성을 위한 스카프
21만원 **구찌**.

브랜드 특유의 컬러풀한
프린팅이 돋보이는
비키니를 30만원대,
비키니 브라프 20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로고 스텐드 컬러링을
소재로 만든 **에르메스**의
스트라이프 벨트. 36만원

로고를 새긴 캐주얼한 분위기의 캔버스 소재
남성용 벨트. 36만원 **구찌**.

여행에서 가장 쉽게 무릎
살릴 수 있는 남성을 위한 **토이즈**
30만원 **키아스키**.

모노그램 가죽 체인
네크리스. 60만원대
루이 비통.

로고 프린트
데님 슬림핏
79만원 **토즈**.

토리버치 02-515-4080 마이클 마이클코어스 02-546-6090 구찌 1577-1921
바버리 080-700-8800 셀만스 02-549-6631 하트만 02-3448-5914 에르메스 02-518-0285
에르메스 02-542-6622 보타가 베네타 02-3438-7601 루이 비통 02-3432-1854 키아스키 02-3433-6501
토즈 02-3438-6008 빌리 02-3467-8935 렌디 02-2056-9023 심비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hartmann
SINCE 1877
FOR SOUL TRAVEL

청담점 (직영) 02 3448 5914
롯데백화점 잠실점 02 2143 7154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 257 3393

갤러리아 명품관 WEST 02 6905 3824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 3479 1520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여주점 031 880 1315

현대백화점 본점 02 3449 5389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051 745 2580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031 8048 215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 3467 8710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 661 6517



현대미술과 과학기술의 환상적 동맹은 가능할까?

현재 파리 그랑 팔레(Grand Palais)에서는 로봇 아트, 알고리즘 아트 등을 아우르는 전시 <아티스트와 로봇(Artistes et Robots)>,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복합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성찰하는 전시 <예술과 기술의 실험(E.A.T.): 또 다른 시작>이 진행 중이다. 지난봄 열린 아트 바젤 홍콩에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이 주목받았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술에 있어 과학기술은 좋은 도구이자 소재이며, 보다 관객 참여적이고 쌍방향 소통이 더 활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본디 상이점 만큼이나 공통점도 많았다는 예술과 과학기술의 21세기 동맹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



소위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예술과 과학기술'이라는 키워드의 조합 자체는 그다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거창하고 심오한 기술적 토대를 바탕으로 삼지는 않더라도 오늘날 창작의 어떤 단계에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작업하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때문 그것이 지나쳐 내용보다 형식에 과하게 치중하는 바람에 기술적 양식만 두드러질 뿐 정작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든, 다시 말해 '본말이 전도되는' 사례가 꽤 흔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표현 양식으로서 무딘 일상과 사물을 참신하고 충격적으로 느끼게 하는 전율을 일으키는 것이 예술의 중요한 역할로 꼽힌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갖가지 기술적 시도와 활용은 자연스러운 행보일 터다. 형식을 바꾸면 내용도 달라지게 마련이고, 이렇듯 바뀐 내용은 또 형식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리라는 법은 없었지만, 분명 기술이 예술에 날개를 달아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 말이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 프리드리히 니체가 당대의 발명품인 타자기를 사용하면서 보다 간결하고 힘 있는 문체를 구사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일화도 전해지지 않는가. 어쨌거나 기술의 진보가 예술적 표현에 있어 운신의 폭을 넓혀주거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지난 3월 말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in Hong Kong) 무대에서 만난 세계적인 조각가 앤터니 고펠리(Antony Gormley)의 경우만 봐도 오래전에는 자신의 발가벗은 몸을 직접 석고로 떠서 주물을 만드는, 물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인체 작업으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조각 작업에서는 주로 컴퓨터를 활용한다고 했다. 첨단 보디 스캐너로 각종 포즈를 담아낸 다음 컴퓨터에 옮겨 작업에 임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전문가를 동원한 팀 단위의 섬세한 작업이다. 아트 바젤 홍콩 개최 기간 동안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 열린 자신의 개인전에서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새로운 작품 라인도 선보였다. 인간의 몸과 하늘을 배경으로 뻗어나가는 나무의 유사성을 포착한 대문호 괴테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루터(Rooter)' 시리즈(괴테는 식물변형론, 광학론 등에 대한 책을 쓸 정도로 내공 있는 자연과학자이기도 했다).

뉴미디어 아트가 빛을 발한 2018 아트 바젤 홍콩

아시아를 대표하는 간판 아트 페어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한 아트 바젤 홍콩. 아트 페어에서는 아무래도 평면 회화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올봄 행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의 활용이 돋보이는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그중 단연 화제작은 유명 작가인 애니시 카푸어

(Anish Kapoor)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ć)의 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작품이었다. 두 작가는 글로벌 IT 기업 HTC의 VR 브랜드 HTC VIVE와 어쿠트 아트(Acute Art)의 지원을 받아 저마다 VR 작품을 내놓았는데, 각각 15분 정도 소요되는 부스에서 관람객의 감상을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행위 예술가로 명성 높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작품 'Rising'은 관람객이 VR 헤드셋을 착용하면 수조 안에 있는 작가가 구조 신호를 보내는 모습과 맞닥뜨리는데, 손으로 수조를 두드리면 이 수조가 깨지면서 그녀의 자취는 사라지고 대신 무너져내리는 빙산을 마주하게 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 등 환경 파괴에 대한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체감할 수 있다. 애니시 카푸어의 작품은 'Into Yourself, Fall'이라는 제목처럼 인체 내부를 바라보면서 심연의 세계로 끌여들여 추락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데, 다소 난해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인지, 과연 걸로 드러난 게 전부인지' 등을 묻는 작가 본인의 철학적 질문을 VR 형태로도 나름 효과적으로 담아낸 듯 보였다. VR을 활용한 아트 작업에 특화된 벤처기업인 어쿠트 아트의 제이콥 드 기어(Jacob De Geer)는 "관객의 체험 몰입도가 훨씬 향상된 최신 VR 기술을 활용해 뛰어난 아티스트들과 협업한다는 건 아주 흥미로운 도전"이라면서 "기술 자체는 다소 생소할지 몰라도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구현한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증강현실까지

미디어를 전송해 로봇이 조각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를 퍼포먼스, 모션 그래픽 등에 응용하는 독특한 디지털 제작 방식으로 예술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1 중국 베이징을 무대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차오페이(Cao Fei)의 BMW 아트카 프로젝트.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블랙 카이지만, AR 앱을 깔고 사진을 찍으면 다른 이미지가 펼쳐진다. 사진 BMW 제공 2 디지털 작업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구현해낸 다비데 콰올라(Davide Quayola)의 흑백 작품 '리메인: 발레 드 주(Remains: Vallée de Joux)', 사진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 제공 3 파리 그랑 팔레(Grand Palais) 전시장에서 오는 7월 9일까지 펼쳐지는 <아티스트와 로봇(Artistes et Robots)> 전시 중 에드몽 쿠쇼(Edmond Couchot)와 미셸 브레(Michel Bretin)의 작품 'Les Pissenlits', 패블로 데고 실제로 입금을 붙여넣으면 커다란 스크린에서 디지털 인플레 꽃씨가 흩어진다. 4, 5 세계적인 현대미술 애니시 카푸어(Anish Kapoor)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ć)와 지난 3월 말 홍콩에서 열린 아트 바젤 홍콩에서 선보인 VR 작품. 각각 인체 내부의 탐구와 기후변화의 부작용에 대해 다뤘다. 6 지난 4월 중순 열리는 국제구락부대회에서 일본 디자인 스튜디오 낸도(Nendo)가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개인전에서 선보인 인터랙티브 스크린 작품인 '블루밍 셰이드(Blooming Shades)', 사진 낸도 제공 7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오는 9월 16일까지 열리는 전시 <예술과 기술의 실험(E.A.T.): 또 다른 시작>에 선보인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의 자석 TV(Magnet TV)(1965년 제작, 1995년 재제작), 사진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8 지인의 감성을 디지털로 전하는 인터랙티브 공간. 일라구 국제구락부대회에 참가한 글로벌 기업 소니의 작품, 사진 SY Ko



30대 아티스트 다비데 콰올라(Davide Quayola)의 작품도 눈여겨볼 만했다. 2018 아트 바젤 홍콩 전시장의 VIP라운지에 들이신 명품 시계 브랜드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 부스에서 선보인 그의 작품은 비디오나 디지털 조각이 아니라 '디지털 풍경(landscape)', 브랜드의 고풍인 발레 드 주를 연상시키는 풍경을 고도의 디지털 작업을 거친 흑백으로 표현해낸 '리메인: 발레 드 주(Remains: Vallée de Joux)'라는 작품이다. '하이테크의 미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됐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각적으로 보는 이를 사로잡는 묘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이야말로 일단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매력이다. 기술이 불러일으키는 부담스러운 이질감은 없다. "스캐너로 자연 구성 요소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 기하학적 구도만 참고해 철저히 디지털 작업으로 풍경을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3년 전쯤부터 이 기술을 집착했죠. 디지털을 여러모로 활용하는 방식은 어릴 때부터 체계 익숙했던 환경 덕분이에요." 전시장에서 만난 콰올라의 설명이다. '그래, 어차피 예술은 자연의 모방(미메시스)일진대, 그 도구가 무엇이든 정체성과 가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이었다. 뉴미디어로 주목받은 올해 아트 바젤 홍콩의 또 다른 스타는 중국의 젊은 미디어 아티스트 차오페이(Cao Fei)였다. BMW와 협업해 완성한 아트 카(#18 BMW Art Car)를 지난해 스위스 바젤에서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선보였는데, 아직 아트 세계에서 흔치 않은 AR(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터라 이목이 집중됐다. 그녀의 아트 카는 육안으로 바라보면 그저 무광의 검은색 차일 뿐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별도로 제작한 AR 앱을 설치한 다음 자동차를 촬영하면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자동차 위에 다양한 패턴과 색상의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 AR 작품은 BMW에도 그렇지만 차오페이로서도 처음이었다. 그래서 작가는 '산고까 만만치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우선 AR 환경 없이는 그저 보통의 '블랙 카'로 보이는 콘셉트에 대해 브랜드와 합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아트 카라고 하면 차체를 장식하는 화려한 시각적 효과부터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또 제 생각을 구현해줄 엔지니어 팀을 직접 찾아야 했고(결국 스위스에 위치한 스튜디오와 협업했다), 앱도 개발해야 했는데, 이 모든 게 처음이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했어요." 생각의 속도는 측정할 수 없기에 인간 정신의 경계선을 탐험해보고 싶다고 거듭 밝힌 그녀는 "이번 작품으로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솔직히 힘들기도 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AR 작업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웃었다.

디자인 세계에서 '디지털 융합'의 관건은 '편안한 어려움'

지난 4월 중순 열린 밀라노 국제기구박람회(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2018)에서는 첨단 기술이 디자인 영역에 잘 녹아든 좋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글로벌 인지도를 자랑하는 디자인 그룹 낸도(Nendo)의 전시장을 되돌아보자. 낸도는 여러 브랜드와 협업했지만, 주 박람회장이 아닌 도시 곳곳에서 열리는 장의 전시를 뜻하는 '푸오리 살로네에' <Nendo: Forms of Movement>라는 단독전으로도 참가했는데,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 전시에서는 첨단 재료와 기술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인 작품을 선보였다. 일례로 센서를 활용해 공간에 침투하는 빛의 강도에 따라 꽃잎이 피어나거나 지는

듯이, 혹은 나뭇잎이 무성해지거나 수그러드는 식으로 창문을 덮고 가리면서 밝기를 조절하는 '블루밍 셰이드(Blooming Shades)'는 미학적 요소와 기술적 면모가 편안하게 어우러지는 본보기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물라보 소극장을 빌려 1백 대가 넘는 TV와 1백8개의 상들리에로 구성된 설치물을 세운 뒤 2시간마다 해석적인 카바레 쇼를 선보인 조맹 브랜드 라스빗(Lasvit)의 전시는 창의력은 물론 소통 면에서도 최상의 이벤트라는 극찬을 이끌어냈다. 글로벌 기업 소니의 <Hidden Senses>라는 장의 전시도 많은 관람객들이 호평을 쏟아낸 화제작이었다. 에르메네제일로 제나의 본사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창문, 액자, 컵, 음악 시스템 같은 것들에 디지털 영혼을 불어넣은 듯 인터랙티브 요소를 가미해 가볍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연출했다. 예컨대 사람이 다가가면 이미지가 확대되는 사진 액자라든가 사람의 움직임을 따라 빛이 이동하는 복도 등의 인터페이스 환경이다. '인터랙티브 미학'을 편안한 감성으로 녹여낸 센서 기술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의 디지털 환경이 차가운 인공미보다는 따스하고 친밀한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줬다. 디자인 영역에서는 특히 미적인 면모가 중요하지만, 실용적인 독창성보다는 편안한 감성의 아우러짐이 핵심 덕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수긍되는 호응이었다.

예술과 과학은 본디 통한다?

예술 영역에서도 실용적인 편안함까지는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해도 형식에 과하게 치중하는 것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듯하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만든 비주얼, 훌륭한 사운드를 구현해낸 작품에 반드시 좋은 평가가 내려지지는 않는 게 현실이지 않은가(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그렇다). 예술에서 감각적 체험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결국 관건은 '본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본질은 뭘까? 우수 학자들은 보편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통합적 경험에 이르는 것'이라고 살펴한다. 이쯤에서 흔히 예술과 과학은 주관성과 객관성, 이성과 감성 등 이분법적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둘은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혹자는 "예술과 과학은 동일한 도구와 재료를 사용한다. 그들을 이어주는 주요 연결점은 기술(technique)"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오늘날의 신기술은 예술가와 창조, 관객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특히 주목하라고 당부했다. 게다가 과학이든 예술이든 한 분야에 몰입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경지는 합치할 수 있다는 설명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첨단 과학기술과 예술이,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연에서 끌어올린 통찰적 에너지로 '환상적 동맹'을 이루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마침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그러한 동맹을 꿈꾸고 시도했던 1960년대의 문화 운동을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예술과 기술이 만나 더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던 장 키타리, 로버트 라우센버그, 백남준 같은 아티스트와 공학자의 비영리 실험적 협업체인 E.A.T.(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의 활동을 다룬 <예술과 기술의 실험(E.A.T.):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전시다.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중시하면서 기존의 틀을 깬 혁신적인 시도도 평가되는 실험이었던 만큼, 예술과 과학기술의 환상적인 동거 가능성이 어느 정도 가능해볼 수 있는 기회일 듯하다. 글 <고성연>

Hyper Feminine

펜디 2018 프리폴(pre-fall) 컬렉션을 패턴과 컬러, 실루엣과 스타일, 청순함과 우아함이라는 매력적인 에티튜드로 풀어낸 김희선의 트윈 룩.

photographed by ahn joo young



체크 패턴 코트 3백99만원,
화이트 니트 톱 1백35만원,
레드 팬츠 99만원, FF 로고
화이트 삭스 18만원, 체크 콜리브리
슈즈 1백35만원, 레이스업 디테일의
미니 발렛 파카부 4백75만원 모두 렌디.



레이스 포인트 블라우스
1백99만원, 체크 스카트
1백55만원, 핑크 컬러 셀라리아
미니 파카부 4백65만원, FF 로고
삭스 18만원, 체크 콜리브리 슈즈
1백35만원 모두 렌디.

레이스 솔더 디테일의 체크
드레스 3백65만원, 네이비 컬러
크로커다일 미니 피카부
가격 미정, FF 벨벳 플리브리 슈즈
1백39만원 모두 랜디.



레드 퍼 트라이밍 포인트 재킷
4백55만원, 수트 팬츠 1백39만원,
체크 패턴 셔츠 1백55만원, 그린
컬러 크로커다일 미니 피카부 백
가격 미정, FF 벨벳 플리브리 슈즈
1백39만원 모두 랜디.



오프 숄더 드레스
3백65만원, 크림 컬러
레이스업 셀룰라이 파카부
4백30만원, FF 블랙
콜리브리 슈즈 1백39만원
모두 렌디.



트로피컬 브리즈 패턴의 드레스
2백99만원, 블루 로고코 부츠
1백39만원 모두 렌디.





블루 셔링 코트 가격 미정,
 FF 로고 니트 1백25만원,
 플리츠스커트 2백15만원,
 피카부 에센셜리 코리아
 익스클루시브 에디션 백
 4백65만원, FF 로고 디테일의
 로코코 부츠 1백39만원 모두 렌디.



FF 로고 퍼 재킷 가격 미정,
 FF 로고 니트 1백25만원,
 브라운 벨벳 스커트 2백15만원,
 FF 리본디드 로코코 부츠
 1백39만원 모두 렌디.

문의 02-2056-9023

헤어 채수훈
 메이크업 오윤희
 스타일리스트 구원서
 세트 스타일리스트 박주영
 어시스턴트 김은서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iconic Motif

펜디의 끝없는 창조 정신을 상징하며 수백 가지 버전으로 재해석되어온 FF 로고는 2018년을 맞아 사각형 버전으로 '재교차(reload)'되어 새로운 컬렉션으로 태어났다.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이라는 특별함을 더해 패션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펜디 FF 리로디드 컬렉션을 소개한다.

강렬하게 눈을 사로잡는 새로워진 FF 로고를 공개하는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 FF 리로디드(FF Reloaded), 현대적이고 패셔너블한 이 캡슐 컬렉션은 브랜드의 유산이자 상징인 FF 로고를 새롭게 해석해 선보인다. 펜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칼 라가펠트가 1965년 펜디에 부임해 디자인한 유쾌한 모피(Fun Furs)라는 의미의 FF 시그니처는 이제 펜디의 유산이 되었다. 칼 라가펠트는 '제가 1965년 처음 펜디에 왔을 때, 펜디의 다섯 자매는 자에게 현대적인 소규모 모피 컬렉션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FENDI와 유쾌함(fun)의 머리글자가 같다는 데 착안해 F자 2개를 합친 로고를 5초도 안 걸려서 스케치했죠. Fun Furs를 뜻하는 FF 로고를 만든 거죠'라고 밝혔다. 1974년 직사각형이던 FF 로고는 사각형으로 재교차(reload)되어 그래픽적인 전면 패턴으로 등장하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비아 벤추리니 펜디는 로고의 의미를 다시금 이야기한다. "이는 단순한 로고를 넘어서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하죠. 자에게 펜디 FF 로고는 하나의 코드이고, 우리의 DNA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펜디 FF 로고를 컬렉션에 적극 활용합니다. 단 순한 로고기 아니라, 전통과 열정, 사랑이라는 가치를 통해 1백 년 가까이 이어져온 매혹 역사의 상징입니다."

이번 새롭게 선보이는 컬렉션에서는 기존 타바코와 블랙 컬러의 조합은 물론, 블랙 & 화이트 버전으로 재구성한 버전까지 더욱 모던해졌다. 이 새로운 컬러 조합은 파카, 후디, 보머, 로코코 스니커즈와 같은 시크한 컬렉션에 적용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물론 펜디의 상징적인 아이템인 선글라스, 링크 백 참, 더블 스트랩 필찌, 아이폰 케이스도 함께 선보인다. 이 캡슐 컬렉션은 판매 방식도 독특한다. 2018년 5월 15일부터 지정된 펜디 부티크와 글로벌 공식 사이트인 fendi.com에서 판매하는 것은 물론, 지난 2018년 4월 13일부터 네타포르테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하는 익스클루시브 제품을 별도로 만나볼 수 있다. 블랙 & 화이트 FF 로고 니트 2중, 코트 티셔츠, 타바코 실크 점퍼 세트, 블랙 & 화이트 런어웨이 가방, 화이트 로코팝 스니커즈, 링크 & 발렛 슬리퍼는 오직 네타포르테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다. 문의 02-2056-9023 에디터 배미진



1 고급스러운 사일링 보머 재킷에는 인센와 안토르시아 기법을 매력적으로 조합한 FF 로고 무늬를 적용해 펜디의 뛰어난 공예 기술을 보여준다. 블루중 양면에는 링크 모피 안토르시아 로고로 더했다. 2, 14 환상적인 패턴의 조합으로 가득한 FF 리로디드의 감성을 그대로 드러낸 광고 비주얼. 3 FF 로고를 두드러지게 표현한 캔아이 에프 백. 4 선명한 FF 로고의 로코코 스니커즈. 5 이제 펜디의 필수 아이템이 된 워킹스 참. 6 발렛 카펫 기법과 사일링 안토르 로고를 넣은 알차스 스트랩류. 7 FF 스카프 수트를 입은 벨라 하디드. 8 극도로 세련된 매력을 담고 있는 로코코 부츠. 9 완전히 새롭게 선보이는 블랙 & 화이트 FF 로고를 대입한 캔아이 백. 10 페트리 밑을 더한 쇼세어 코트. 11 블랙 & 화이트의 FF 리로디드 컬렉션은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매력을 완벽하게 표현한다. 12 보머 재킷을 착용한 리타 오리. 13 캐주얼한 룩을 연출하는 실크 자카드 보머 재킷을 입은 지지 하디드.





find your Treasure

역사와 전통, 그리고 역동적인 젊음의 에너지가 상생하는 도시 베를린. 오메가의 품격은 이곳, 베를린에서도 빛을 발했다. 오메가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매력적인 여성 워치이자 젊은 세대에게 보물 같은 존재가 될, '트레저(Trésor)' 컬렉션과 함께.

© sponsored by OMEGA



은 확실합니다. 젊은 디지털 세대는 감성을 즐기고 소비하는 성향이예요. 이는 마치 우리가 오메가만의 감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시계는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브랜드의 특별한 감성을 손목에 담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매 개체가 되는 거죠"라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새로운 트레저 컬렉션은 오메가 가족에 대한 스토리, 다음 세대와 공감하는 젊음, 그리고 오메가만의 감성과 새로운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타임피스는 점에서 더욱 가치 있다.

카이아 거버의 선택, 트레저 컬렉션

오메가는 1949년, 시계 내부에서 동력을 전달했던 진정한 보물인 30mm 칼리버를 강조하기 위해 '트레저'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다. 이 무브먼트는 그 자체만으로 정확성과 깔끔한 디자인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2014년 에 이르러 '드 빌 트레저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10.6mm에 불과한 얇은 케이스로 오리지널 모델의 클래식한 품격을 다스린 계승했다. 이런 트레저의 전통은 2018년, 모든 여성을 특별하게 만드는 보물과 같은 디테일에 주목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오메가 여성 워치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한다. 10대들의 워치인 모델 카이아 거버(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는 무려 3백만 명이 넘는다는) 이번 트레저 컬렉션을 대표하는 모델을 넘어 디자인 작업에도 직접 참여해 오메가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모델 일을 하면서 하이패션 의상을 자주 접하지만, 평소 빈티지 룩에 열광하는 영락없는 10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이아의 스타일을 반영해 레트로 느낌의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 디자인에 세련된 로마숫자 인덱스, 그리고 과하지 않은 다이아몬드의 우아한 반짝임을 더했고, 매일 거머에 따라, 또는 스타일에 따라 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컬러 스트랩까지 선보이며 특유 젊음의 감성을 풀어놓았다. 더불어 크라운에 장식한, 오메가 로고를 5개 겹쳐 완성한 플라워 디테일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이 시계의 특별한 비밀은 시계의 케이스 밖에 숨어 있다. 모든 트레저 모델에는 그녀를 위한 시간(her time)을 상징하는 플라워 모터브의 기울을 장식해 은밀히 시계 뒷면으로 기울을 볼 수 있는 섬세함까지 갖추었다. 39mm 또는 36mm 사이즈의 얇은 케이스가 특징이며 총 9개 모델로 선보이고,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18K 세드나™ 골드 케이스를 비롯해 블랙, 화이트, 블루, 머더오브달 디자인까지, 트레저 컬렉션의 영감이 된 다양한 여성들처럼 각각의 개성으로 매력을 발산한다. 오메가 칼리버 4061을 탑재해 오메가를 상징하는 저음력도 놓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매력적인 가격대에 선보이니 자질이 열리는 건 시간문제다. **에디터 권유진(베를린 현지 취재)**

오메가 여성 워치의 비전을 베를린에서 확인하다

오메가의 새로운 여성 워치인 '트레저(Trésor)'의 론칭 이벤트를 참가하기 위해 베를린에도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베를린인가?'였다. 오메가의 보육인 스위스도, 혹은 시계 시장의 중심지인 파리나 여타 주요 아시아 지역도 아닌 베를린이라니. 하지만 이 공공중은 역사와 젊음의 에너지가 생동하는 베를린의 숨은 매력과 오메가의 미래이자 파격적인 행보라고도 할 수 있는 트레저 컬렉션을 직접 확인하면서 금세 해소되었다. 여기서 파격적인 행보라고 칭한 건,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오메가에서 16세의 모델 카이아 거버(Kaia Gerber)를 무즈로 발탁하고, 더 나아가 그녀가 직접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트레저 워치를 올해 오메가를 대표하는 시계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난 바젤월드에서도 오메가 부스 입구에 트레저 워치와 카이아 거버의 사진을 디스플레이했을 정도니, 이 새로운 여성 시계에 대한 기대감과 이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베를린 론칭 행사에서는 '보물'이라는 뜻을 지닌 오메가 워치의 현상이자 젊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베를린을 선택한 건 신의 한 수라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만큼 트레저 워치가 전하고자 하는 젊은 감성과 스토리를 품위 있으면서도 위트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 그 하이라이트는 베를린의 클럽에서 진행된 이브닝 파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내부는 (우대할 개조바)의 파티에 초대된 듯 몽환적인 빛과 음악, 핀타치오로 가득 채워졌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 초현실적인 동화 속 풍경과 곳곳에서 펼쳐진 행위 예술가들의 퍼포먼스, 달콤한 디저트로 가득한 테이블과 초대된 이들을 유혹하는 듯한 향형새의 카테워크까지, 파티 열기는 미로처럼 살갗에 파티장 가장 깊숙이 전사되어 있던 아름다운 트레저 워치에 다다랐을 때 환호로 이어졌다. 오메가 CEO인 레이날드 애슬러민이 이날 현장에서 클래식 타임피스의 정제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시계라고 표현한 것처럼 트레저 워치는 우아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카이아 거버의 표현에 따르면 화이트 스니커즈에도 착용할 수 있는 모던한 디자인으로, 특히 젊은 세대의 감성을 이울 수 있는 매력적인 여성 워치다. 이 새로운 여성 워치에 대해 레이날드 애슬러민은 "오메가는 가치 높은 역사를 지니고 있고, 모든 브랜드의 리더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카이아 거버라는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관점에서 새로운 시계를 연구하고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오메가는 저음력이 있는 브랜드이고 여성 시계에 대해 매우 풍부한 스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트레저 워치는 매우 신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딘지 않은 않습니다. 젊은 감성이 느껴지면서도 매우 우아하니까요. 여성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닙니다. 마치 스타일을 반영한 옷과 같죠"라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이날 행사의 주인공인 카이아 거버는 트레저의 대표 모델이 된 데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하며, "저 역시 같은 세대인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빈티지 룩에 열광해요. 오메가의 트레저 워치는 클래식 스타일에 세련된 디테일을 더한 작품이예요. 모델로서 수많은 아름다운 의상을 착용하면서도 평소에는 청바지와 화이트 스니커즈를 즐겨 입는 저는 이 시계가 모든 룩에 잘 어울린다는 점이 제일 민중스러워요"라고 덧붙혔다.



1 오메가 파티 인트로가 카이아 거버의 퍼포먼스 트레저 타임피스. 2 베를린에서 진행된 오메가 트레저 컬렉션 론칭 파티에서 모델 카이아 거버가 극적으로 등장하며 모든 이들의 환호를 받았다. 3, 4, 8 행사 내내 곳곳에는 항상적인 디스플레이와 함께 행위 예술가들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졌고, 5 트레저 워치 뒷면에 새겨진 플라워 모터브 로고를 장식한 행사장 벽면. 6 트레저 컬렉션 론칭 파티에서는 미스터리한 것을 매체로 인물을 이야기해야만 인정할 수 있었으며, 그 인물은 바로 트레저 워치의 상징인 플라워. 7 모던한 시계도 클래식하고 우아한 감성을 더해 모든 세대를 아우를 특별한 여성 시계, 트레저 워치. 9 트레저 워치의 배경에는 다이아몬드를 우아하게 감싸듯 디자인을 세팅해 품격을 더했다. 10 모든 트레저 워치 뒷면에는 여자들의 필수품인 기울을 장식하는 섬세함도 엿볼 수 있다.



interview with Kaia Gerber (카이아 거버 · 오메가 트레저 워치 앰배서더이자 모델)

플러인 안과 병원을 방문했는데, 예마 저가 열세 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안과인 이 병원은 비행기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특별한 곳이에요. 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메가와 함께 때루를 구경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특별한 순간을 오메가와 함께한 것 같아요.

Q3 당신을 생각하면 어머니인 모델 신디 크로퍼드를 떠올리게 된다. 어머니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당신만의 스타일을 설명한다면? 저는 엄마보다는 상대적으로 톱보이 스타일에 가까워요. 클래식하지만 세련된 룩을 추구하고, 심플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메가 트레저 워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죠. 이런 제 스타일과 정말로 잘 어울리는 시계거든요.

Q4 아직 젊어서 살에 볼록하지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당신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휴식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어요. 어릴 때는 휴식이라고 하면 지루해하곤 했는데, 요즘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감사하고 있어요. 바쁘더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자신을 돌이켜 보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저 스스로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 벨리커가 체커리라서 그런지 평소에도 시간을 매우 잘 지키는 편이에요. 엄마에게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엄마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고, 약속을 정확히 지키려 노력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늘 제게 제 삶의 매 순간을 즐기며, 하루하루 즐려 보내거나 당연하게 여겨주는 인 된다고 가르쳐주셨어요.

Q5 당신과 같은 10대들은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거나 시간에 연연하지 않는 편이다. 이들에게 오메가 워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요즘 시대에는 사실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시계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두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계는 이제 클래식 아이템이고, 저에게는 행운의 아이템이기도 있어서 시계를 착용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오메가, 특히 트레저 워치는 특별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었어요. 트레저 워치는 제가 매일 입는 청바지와 화이트 스니커즈에도 잘 어울리고, 격식을 갖춘 이브닝드레스에도 멋지게 어울리죠. 저와 제 또래 친구들은 럭셔리 제

플과 스트리트 스타일이 공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모두와 잘 어울리는 트레저 워치는 10대인 제 친구들에게도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라라도 시계를 선글라스나 주얼리 같은 패션 액세서리로 활용할 수 있어요. 착용했을 때 스타일리시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착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Q6 오메가 트레저 컬렉션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다. 그 과정은 어땠나? 무엇보다 오메가 측에서 제 아이디어를 경청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앞에서 말했지만, 저도 그렇고 또 또래들은 보통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죠. 이제 시계는 단순한 기능을 넘어서 자신이 원하는 룩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향수나 주얼리처럼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고르는 액세서리 같은 개념으로요. 트레저 컬렉션을 디자인할 땐 최대한 클래식 워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메가의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이런 시계의 클래식한 가치가 더욱 특별하게 빛나고 있는 시대니까요. 오메가의 클래식 워치에 젊은 감성을 더하는 작업은 정말로 재미있었어요. 가족의 디자인에 애착과 신선함을 기미한 트레저 워치를 통해 젊은 세대의 언어를 대변했다는 점이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Q7 트레저 워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스타일'이요. 클래식과 새로운 스타일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Q8 가장 기억에 남는 오메가의 가족은 무엇인가? 가족 의식이예요. 오메가는 저와 마찬가지로 가족 의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공통 가치 덕분에 오메가와 시계에 빠질 수 있었고, 저의 가족들도 마음껏 내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오메가의 일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으니까요.

Q9 베를린은 어땠나? 개인적으로 베를린과 트레저 컬렉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행사가 끝난 베를린 곳곳을 돌아볼 계획이에요. 베를린의 역사에 대해 배울 생각을 하니 너무 기쁘고 설레요! 베를린은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만큼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트레저 컬렉션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when elegance meets Art

베이징 금일미술관에서 반클리프 아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패트리모니얼 전시가 오는 8월 5일까지 개최된다. 주얼리라는 특별한 주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해석, 그리고 아주 가까이서 총체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가 파리, 싱가포르, 교토에 이어 베이징에서 열린 것. 반클리프 아펠이 이야기하는 주얼리의 역사, 그리고 시간이 쌓아온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다.

베이징 금일미술관, 반클리프 아펠 1백 년의 아름다움

최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반클리프 아펠의 (반클리프 아펠)를 리우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전시가 전 일정 예약과 레플리카를 선보이던 전시 프로그램까지 매진되며 놀라운 결과를 이뤘다. 하이 주얼리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와 동을 보르주아 질러선이라는 생소한 모티프에도 대중적으로 기록적인 반향을 불러온 것은 예술과 친정성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철학 때문일 것이다. 국내에서는 신성한 시노그래피라는 개념과 조각 작품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브로치라는 특별한 주제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 것이다. 이렇듯 반클리프 아펠의 정수를 만나 볼 수 있는 패트리모니얼 전시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반클리프 아펠의 역사는 물론 장식미술의 역사까지 아우르는 총 4백여 점의 주얼리 파스가 이곳에 모였다. 브랜드 소장품부터 개인 소장품, 파리 장식미술관 영구 소장품까지 한자리에서 전시되었다. 이 엄청난 컬렉션은 하우스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주얼리인(Justin Manku) 에이전시에서 완성한 시노그래피를 통해 선보였다. 금일미술관(Today Art Museum)의 높디높은 천장에 태슬 커튼으로 만든 우아하고 섬세한 미로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주얼리가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미로를 지날 때 들려오는 물소리와 새들의 지저귐, 마치 연못에 비치는 물결처럼 반짝이는 조명 효과는 반클리프 아펠이 관람객에게 선사하는 세심한 선물이다. 이번 패트리모니얼 큐레이팅에서 가장 유심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러티브, 즉 반클리프 아펠의 스토리다. 전시장 입구에 있는 비투나 요트 작품과 미자파에 전시된 최근의 유니크 파스인 오토메이트 페 웬딘이 제작된 시기는 자그마치 1백 년이나 차이가 난다. 그 시간들을 아름다운 주얼리가 총총히 채워 반클리프 아펠의 히스토리를 완성했다. 반클리프 아펠은 발레, 자연, 원석, 동물까지, 세상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는다. 이 모든 것을 예술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주얼리로 재구성하며, 이 중 우아함에 대한 메종의 시각과 맹 드르(Mains d'Or)라 불리는 장인들의 터치가 더해져 최고의 주얼리가 탄생하는 것이다.

주얼리의 가치를 눈으로 확인하는 진실한 아름다움

사실 이러한 대규모 전시를 개최하는 데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매년 장소 혹은 도시를 바꾸어 전시를 개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CEO 니콜라 보스에게 물었다. “요즘은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발달해 온라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콘텐츠가 매우 많아요. 좋은 사진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는 디지털 매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전시는 실제적인(physical) 경험을 제공하니까요. 우리는 주얼리를 직접 보여 광채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조명의 위치만으로 주얼리를 보는 방식이 달라질 정도죠.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지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디지털에서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반클리프 아펠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물론 반클리프 아펠을 잘 아는 고객도 이러한 전시의 초창점이 될 수 있지만, 학생, 그리고 주얼리를 잘 모르지만 경탄할 정도로 좋아하는 대중에게도 많은 정보와 아름다움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현대에 이 클래식한 하이 주얼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고전적인 작품이나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진 작품보다 가격이 더 높은 하이 주얼리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니 반클리프 아펠의 CEO 니콜라 보스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했다. “하이 주얼리를 소장해야 하는 이유, 그 진정한 가치는 가까이에서 즐기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술관이나 거리가 먼 곳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아름다움과 예술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심지어 집에서 그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은 주얼리가 지닌 엄청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어지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대한 정서가 공공하던 반클리프 아펠의 전시가 그 해답이 될 여울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배미진 현지 취재)

1 오토메이트 페 웬딘(Automate Fée Ondine)은 전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작품으로 전시되었다. 2, 7 주얼리인 에이전시에서 디자인한 큐레이팅 전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3 알사카 브라운 컬러 팬던트를 앞에 문 비디 클럽. 4 카림 아가 칸 4세 왕자의 목걸이, 아가 칸의 소장품인 네크리노. 5 브레이슬릿으로 변형 가능한 지프 네크리노(Zip Necktie). 브랜드의 시그니처다. 6 오토메이트 페 웬딘 액세서리(오래된 오브제, 수련화 가피야고 오양이 움직이는 오토메이트 메카니즘을 표현했다. 8 이번 전시는 베이징 금일미술관에서 열릴 5일까지 열렸다. www.todayartmuseum.com 9 골드, 플라티넘, 다이아몬드, 마스 터키 세팅 루비가 어우러진 크리산덤 클립(Chrysanthemum Clip). 1937년 제작된 반클리프 아펠 컬렉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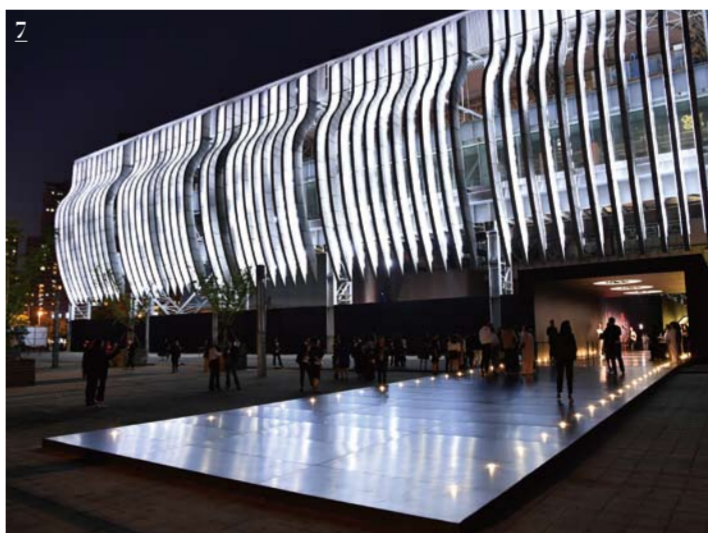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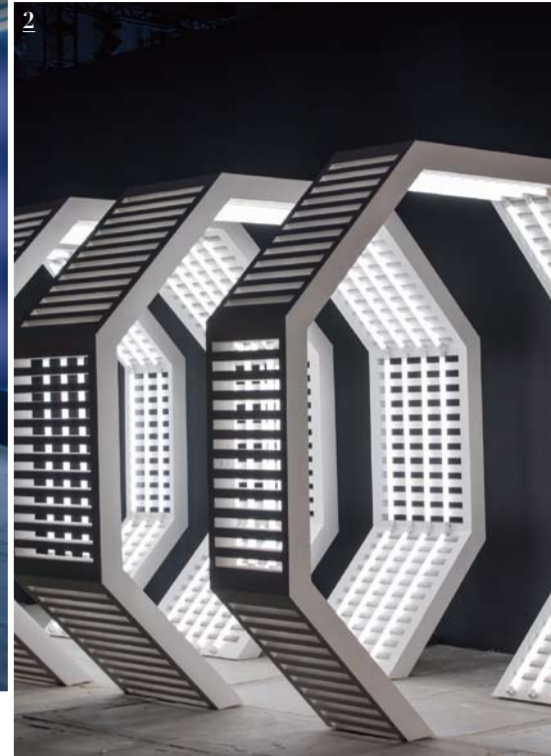
fast forward Men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유쾌한 페스티벌. 지난 4월 상하이에서 열린 에르메스의 행사는 과거와 미래가 어울려 한 편의 멋진 판타지 무비를 보는 듯했다. 브랜드의 미래는 물론 라이프스타일의 미래까지 꿈꾸게 만든 어느 멋진 봄날의 추억.

거대하고 위대한 에르메스만의 시간 여행

에르메스가 상하이에서 단 하루, 환상적인 우주선과 조우했다. 에르메스 남성 유니버시티 아티스틱 디렉터 니샤리크 니샤리크(Véronique Nicharian)이 기획한 이번 패스트 포워드 맨(Fast Forward Men)은 에르메스의 2018 S/S 남성 컬렉션을 단지 보면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물과 분위기 로 느끼고, 체험해보는 행사였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공상 과학 영화 세트 처럼 엄청나게 높은 조명의 입체적인 빛의 통로가 나타났다. 현실 세계와 차단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는 듯한 느낌. 낯설지만 기분 좋은 흥분은 이내 꺼지는 이곳에서 에르메스의 패스트 포워드 맨 월드가 시작되었다. 첫 이벤트는 가니 리웨이에서 펼쳐진 2018 S/S 컬렉션 패션쇼. 상하이의 톱 모델들은 물론 건축가, 아티스트, 엔지니어, 세프, 운동선수 등 직업이 다양한 유명인들도 모였으며 참여할 흥미로운 패션쇼였다. 에르메스만의 고급스러움은 물론이거니와 무심한 듯 세련된, 평범한 듯 비범한, 노골한 듯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볼륨과 길이의 레이아웃, 기본 컬러에 더해진 깊고 진한 컬러, 도사적인 스포티즘이 특히 돋보였다. 여러 소재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톨브라이트(Toolbright) 소재, 반짝임과 선명한 색으로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다. 그 밖에 크리스탈 소재의 차노스, 루스하고 와이드한 팬츠, 크로커다일과 스웨이드 소재의 셔츠 재킷, 스포티한 스티치와 벨트, 몽크 스티플 등이 에르메스 2018 S/S 컬렉션의 주요 스타일을 완성했다. 화려한 쇼가 끝난 후 관객들이 안내된 곳은 다양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거대한 판타지 월드였다. 실험실(Lab Bar)에서는 작업대 너머로 창간이 있지만 명석(그래서 또 살짝 재밌는)이 아닌 고객까지 살짝 도구를 통해 시계, 바티 또는 가죽 재킷을 만드는 장인의 재치와 솜씨였다. 지구의 중력(Gravity on earth)을 표현하는 무대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인간 진자

(a human pendulum)를 향해 흔들리는 2개의 가계한 오목이가 우아한 움직임과 반향하며 곳곳에 존재하는 우주 공간을 탐험했다. 그다음에 만난 것은 우주 비행사들의 필수품인 우주복, 과연 어떤 스타일, 어떤 기법이 이 우주복과 잘 어울릴까? 준비를 모두 마친 에르메스의 동반자인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Pegasus)가 첫 번째 가상 비행을 위해 관객을 안내했다. 그 옆, 맞춤형 기능을 갖춘 탐험선을 우주선 내 거대한 정비 작업장에서 수리 중이다. 맞춤형 스포츠카, 가족으로 만든 자전거, 사바나 컬러의 서프보드 등의 시선이 진행되는 동안 조종사들의 라운지 비가 오픈되었다. 또 다른 공간 비스포크 갑판(Despoke Deck)은 역설을 체험하는 곳이다. 복장함 또는 정밀한 노하우를 담은 단순함을 보여주는 곳. 시간을 측정하면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여러 단계들과 부품을 직접 발견할 수 있었다. 인성과 스타일을 조립하고 해체하고 또 다시 조립해보는 시간이라고나 할까. 그 밖에 상 당크르(Chaine d'Ancre) 체인으로 만든 상상 속 뱀을 조각하는 놀이, 여덟 발의 재킷을 통해 떠나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 군중의 코앞에서 날아다니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하이브리드 생명체, 드론의 리드미컬하고 우아한 비행, 푸드 트럭, 디지털, 라이브 밴드 공연... 끝없는 놀라움과 즐거움은 초대된 모든 이들을 에르메스의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독특한 우주선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다양한 사내가 공존했던 레드-루-웨이와 액세서리들. 이들은 마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데 모인 것처럼 분주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 생동감은 잠시나마 시간을 잊게 해주었다.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탐험하며, 내일과의 대화를 위해 어제를 소환했던 특별한 에르메스의 밤. 오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자 시도했던 과거와 미래가 혼재된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1 우주선도 진입 전, 과연 어떤 스타일, 어떤 기법이 이 우주복과 잘 어울릴까? 2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에르메스의 판타지 월드로 향하는 입구. 3 여덟 발의 에르메스 이야기인 가죽 재킷이 시간 여행을 제안한다. 4, 5 무심한 듯 시크한 코렌치 스타일을 더욱 업그레이드한 2018 S/S 남성 컬렉션. 6 현실을 벗어난 가상 체험을 통해 실감 나는 시간 여행을 즐겼다. 7 가계한 비행선 착륙선 연상시킨 행사장 입구. 8 끊임없이 움직이는 인간 진자 human pendulum를 향해 흔들리는 2개의 오목이, 인부기 요안 부르주아(Yoann Bourgeois).

Best Wool in the world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자부심을 고스란히 담은 세계 최고 남성복의 명가,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재킷과 수트가 의미하는 최상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 완벽함의 출발과 가치를 확인하는 현장, 호주 아미데일의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시드니에서 열린 '엑스트라파인 울 트로피' 시상식에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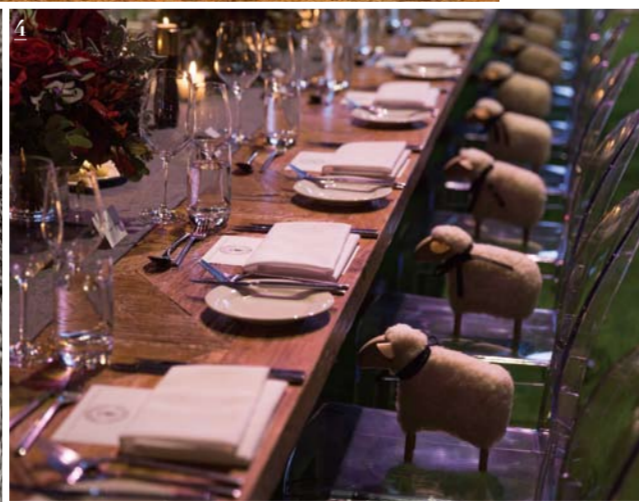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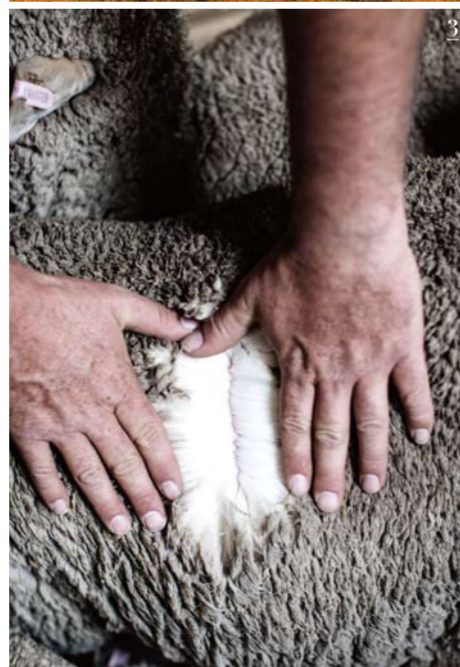
최고의 원재료에서 최상의 패브릭이 탄생하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브랜드,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최고 명성과 퀄리티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윤리적인 경영에서 출발했다. 세계 최고 퀄리티의 천연 섬유와 원료를 통해서만 품격 있는 원단과 최고급 의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은 창업주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철학이자 굳은 신념이었다. 그는 1910년 이탈리아 비엘라 알프스 지역의 작은 마을 트리베로에 방직 회사를 설립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나는 최고급 천연 섬유를 원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원료 조달 방식을 고집해왔다. 천연이든 가공이든, 전 세계에서 올만큼 순수한 고품질 원단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에르메네질도 제나는 이미 1백여 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전문가들이 미가공 울 섬유를 혼합을 데 없고 섬세한 최고급 울 원단으로 만들어내는 수공 기술을 숙련할 수 있게끔 장려했다. 사업 초기부터 장인 정신, 퀄리티, 그리고 혁신을 모토로 원산지에서 가장 훌륭한 원자재를 손수 선별했고, 울에서 실로, 실에서 원단으로, 원단에서 우아한 남성·여성 의류를 가공하는 영구불변의 직물 제조 공정을 정성 들여 보존해왔다. 이탈리아 트리베로에 라니피치오 에르메네질도 제나(Lanificio Ermenegildo Zegna, 제나 울 공장)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최고급 울은 물론, 비쿠냐, 알파카, 캐시미어, 모헤어, 실크 등 세계 각지에서 수급된 최상급 원재료는 해발 700m 산간 지방에 위치한 제나의 팩토리인 라니피치오 제나로 보낸다. 라니피치오 에르메네질도 제나를 다른 원단 제조업체와 구분 짓는 요인은 바로 제조 공정이다. 다른 회사들이 대부분 다양한 공급업체에서 실을 공급받아 원단을 제조하는 데 비해 에르메네질도 제나는 울 섬유를 자체적으로 재공해 공정에 착수하고 전체 제조 공정을 관리함으로써 차별화된 품질과 고유함을 보장한다.



호주 최고급 울 생산을 위한 에르메네질도 제나 울 트로피

최고급 패브릭을 향한 제나의 집념은 원재료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들에 대한 존중과 격려, 그리고 믿음으로 이어진다. 55년 전, 에르메네질도 제나는 울 생산자들의 노고를 독려하고 상을 수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엑스트라파인 울 트로피(Extrafine Wool Trophy)'를 제정했다. 당시의 울 생산 산업은 사육자가 이익이 더 큰, 털이 굵은 양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나는 호주가 울이 얇은 울 원단 생산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이를 위해서는 얇은 울 섬유, 즉 슈퍼파인 울의 확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에르메네질도 제나는 울 생산자들이 울이 가는 울을 생산하고 더 좋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1963년, 호주 울 생산자 협회인 'ASWGA(Australian Superfine Wool Growers' Association)'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울 어워드인 '엑스트라파인 울 트로피'를 처음 개최한 이



1, 5 드넓은 호주의 초원에서 자유롭게 윤리적으로 사육되는 양. 2 2014년 7월, 제나는 6,336에이커인 아칠(Achill)의 지분 60%를 샀다. 3, 8 다 자란 양의 털은 속이 보얗고 고품질로 평가된다. 4 지난 4월 열린 갈라 디너 현장. 저마다 높은 양의 인원이 인상적이다. 6 파울로 제나 회장과 아칠의 6대 생산자이자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찰스 코번트리(Charles Coventry). 7 아칠 농장의 양털 작업장 내부. 9 시드니에서 열린 2018 제55회 울 어워드 시상식 현장. 출품된 양털을 전시했다.

후로 슈퍼파인 울은 많은 회사가 최상의 원단과 최고급 제품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50년 후 2002년에는 호주 울 생산자들의 놀라운 발전을 기념하기 위해 13.9미크론 이하의 울트라파인 울 생산자에게 수여하는 '벨루스 오리움 트로피(Vellus Aureum Trophy)'를 새롭게 제정했다. ASWGA는 장기적으로 슈퍼파인 울을 생산한 선도적인 호주 유명 울 생산자 약 2백 개 업체를 대표하며, 지역 브랜드와 ASWGA 트레이드마크로 18.5미크론 이하의 최고급 슈퍼파인 울을 꾸준히 생산한다는 사실을 보장한다.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새로운 파트너, 아칠(Achill)

지난 4월 방목에 인상적인 투어를 경험했던 끝이 안 보이는 드넓은 초원과 숲. 수만 마리의 양과 소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노니 이곳은 호주 아미데일의 아칠(Achill) 농장이다. 지난 2014년 에르메네질도 제나는 호주의 새로운 울 생산 부지로 아칠을 선정했음을 발표했다. 제나는 부지 내에서 자라는 울로 새로운 패브릭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관광지로 개방하려는 대략적인 계획을 갖고 2014년 7월, 아칠의 지분 60%를 샀다. 2016년, 제나 울 어워드를 시상하기 위해 호주에 있던 에르메네질도 제나의 회장 파울로 제나(Paolo Zegna)는 시드니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의 뉴사우스웨일주(NSW)의 아미데일(Armidale)에서 국제 대표단에게 처음으로 투어를 진행했다. 당시 5대 차량으로 이루어진 호송대가 이끈 이 투어에는 최신식 증축 건물의 축소 모형 공개와 함께 시드니 건축가 피터 스티치버리(Peter Stutchbury)가 디자인한 1백 16년 된 양털 작업장의 재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 4월의 아칠 투어 역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레젠테이션으로 제나가 정직하고 윤리적인 양 사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한눈에 보여주었다. 제나는 아칠을 'farm to fashion'을 실현하고 이헤서기는 이상적인 장소로 만들고자 한다. 진정한 럭셔리를 실현하는 제나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55회 2018 울 어워드 행사 개최

올해도 그룹의 회장인 파울로 제나가 개최한 갈라 디너에서 55번째 '엑스트라파인 울 트로피'와 '벨루스 오리움 트로피' 수여식을 진행해 호주의 최고 울 생산자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지난 4월 26일, 시드니의 피에르 원 호텔에서 열린 갈라 디너에서 제나의 VIP 고객, 다양한 국적의 프레스, 주요 울 관련 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울로 제나가 상패를 직접 수여했다. "50여 년 동안 우리는 최상위 품질의 울을 알리기 위해 힘써왔다. 이렇게 훌륭한 울 생산자들의 노고와 성공을 치하하고 꾸준히 지원하며 상을 수여하는 것은 큰 기쁨이다. 수상자와 후보자 모두에게 축하를 전하며, 호주 ASWGA를 비롯해 올해의 트로피가 수여되는 데 기여한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슈퍼파인 울은 우리 컬렉션을 만드는 근본적인 재료이며, 이를 럭셔리한 원단과 옷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전 세계 고객들이 알아줄 것이라 자신한다. 이 시상식을 통해 귀한 울 섬유에 대한 안목을 높이고, 우리와 함께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울 생산자들의 미래 또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파울로 제나는 시상식에서 이렇게 전하며 생산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제나의 자부심을 표현했다. 최고가 된다는 것, 최고의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남다른 의미를 깨닫게 해준 시간. 럭셔리한 진정한 가치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Dior Homme' 시그니처 로고를 더한 블랙 송이겨가죽과 네온 옐로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액티브한 무드를 강조한 화이트 테크니컬 니트 러닝화 1백만원대 **다음 옴므**, 투박한 라닝화 디자인의 화이트 구찌 로고 가죽 스니커즈, 상징적인 로고 프린트와 상선 모티브안으로 강렬한 인팩트를 준다. 1백10만원 **구찌**, 두껍고 투박한 솔이 특징으로, 깔끔한 화이트 베이스에 LV 패턴의 가죽 라인을 더한 LV 이터라이트 스니커즈 1백38만원 **루이 비통**, 재나 구찌로 컬러선을 상징하는 트리를 외스(XX) 모티브를 이터스틱한 패턴으로 재해석해 더한 티셔츠는 트리를 외스 스니커즈 1백40만원대 **에르메시**도 **재나 구찌**로, 에스닉한 무드가 느껴지는 컬러풀한 가죽 프린트 장식과 실루엣이 유니크한 샵스 스니커즈 1백30만원 **발렌티노**.



Bottega Veneta

가죽이 가을, 겨울 소재라는 편견을 단번에 깨줄 아주 부드러운 가벼운 서머 스웨이드 소재의 보테가 베네타 미니 원피스, 마치 거털처럼 보이는 핸드 카빙한 프린트와 메탈 장식이 포인트로, 핑거링에서 자유로운 보헤미안 무드를 느낄 수 있다. 특히 몸을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게 날리는 프린트 장식은 직접 입었을 때 잔가를 발휘한다. 8백60만원대, 문의 02-3438-7601



Hermès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를 두른 듯 파퓰러를 따라 흐르는 실루엣이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에르메스의 롱 드레스, 비치 드레스로는 물론 우아한 이브닝 웨어로도 빛을 발할 것. 서핑 디테일과 언밸런스하게 처리한 드레스 끝단이 보다 실루엣을 더욱 길고 가벼워지게 연출한다. 열쇠, 밧줄 등 프린트의 귀재다운 유니크한 패턴의 조합도 멋스럽다. 6백만원대, 문의 02-542-6622



cool/Walk

1백만원 상당의 러닝화에 웨어링 리스트가 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운동화의 모습을 한 쿠티르 러닝화가 높은 가격대에도 인기 절정인 건, 무엇보다 편안하면서도 윌트 있는 룩을 완성해주기 때문. 소위 없어서 못 판다는 2018 쿠티르 러닝화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투박해서 더욱 멋스러운 베이지 컬러 투톤 베색의 가죽 운동화 61만원 **이크네 by 에크루**, 구조적인 디자인과 청카한 고무 밑창, 두 줄의 벨크로 스트랩의 조화가 돋보이는 이글리시 로 톱 스니커즈 1백19만원 **스텔라 매카트니**, 1960년대 레트로 디자인에 미래적인 무드를 가미해 액티브한 테크 웨어 스타일을 완성한 클라우드 바스트 메시 스니커즈 90만원대, 블랙, 그레이, 레드 컬러의 자카드 니트 소재로 제작한 벨크로 스트랩이 포인트인 크로세션 스니커즈 90만원대 모두 **프러다**, 에디터 권유진

다음 옴므 02-3480-0104 **구찌** 1577-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에르메시**도 **재나 구찌**로 02-518-0285 **발렌티노**도 02-6950-3610 **에크루** 02-545-7780 **스텔라 매카트니** 02-6905-3680 **프러다** 02-3218-5331



2018년 10월 10일 촬영, 이나스틴 이시영, 김은서

Summer lady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 하나만 가볍게 입으면 되는 서머 드레스만큼 멋스럽고 시원한 옷도 없다. 럭셔리 하우스 네 곳의 감성을 터치한, 울여름 당신이 주목해야 할 여성 원피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Fendi

여성스러우면서도 트렌디한 원피스를 찾고 있다면 펜디의 이 매력적인 드레스를 눈여겨볼 것. 펜디 2018 S/S 런웨이 쇼에 등장한 키 룩으로, 카리브해의 이국적인 컬러와 텍스처를 고스란히 담았다. 바다의 푸른 물빛을 연상시키는 아주 부드러운 스트라이프 니트와 여성스러운 플 스카트 라인의 레드 원피스를 매치해 개성 있는 시티 룩을 완성했다. 니트 1백17만원, 레드 원피스 2백95만원, 문의 02-2056-9023



스타일링: 이나스틴 이시영, 김은서

Fabiana Filippi

여름에는 단연 가볍고 시원한 화이트 원피스가 제격. 구김이 가득 엮스로운 바스라카리는 코튼 소재에 도트 패턴을 텍스처로 표현한 파비아나 필리피의 화이트 원피스로, 브랜드의 상징적인 비즈 장식을 도트 패턴으로 재해석해 포인트 디테일로 사용했다. 이 원피스에 플랫 샌들과 가벼운 캐시미어 스카프를 매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세련되고 편안한 서머 이지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1백78만원, 문의 02-6960-0843 **에디터 권유진**





Exploration of a new territory

루이 비통 메종에서 남성을 위한 향수를 선보인다. 메종의 수석 조향사 자크 카발리에 벨투뤼(Jacques Cavallier Belletrud)가 천연 원재료를 찾아 전 세계 곳곳을 탐험한 끝에 완성한, 남성을 위한 다섯 종류의 오드 퍼퓸. 그가 찾아 떠난 향기의 여정에 <스타일 조선일보>가 함께했다.



새로운 영역으로의 탐험, 루이 비통 남성 향수 컬렉션

모든 빛을 막아 사각이 차던 캄캄한 방안, 온전히 향기를 위한 이 공간에서 마치 무대 위에서 연극이 펼쳐지듯, 하늘 조명이 커지며 공개된 향기의 다양한 얼굴. 세계 각국에서 온 프레스들이 관객이 되어 루이 비통의 첫 남성 향수 컬렉션을 마추한 이곳이 어디일까? 바로 남프랑스 프로방스(Provence)의 그라스(Grasse)에 자리한, 루이 비통 메종의 유일무이한 조향사 자크 카발리에 벨투뤼(Jacques Cavallier Belletrud)의 이틀리이다. 루이 비통은 지난 2016년 여성 향수 컬렉션을 론칭하며, 그동안 존재가 없는 듯하면서도 메종 하우스의 역사에 깊이 뿌리 내린 후각 여성의 사곡을 알렸다. 이 기사를 읽고 있는 당신이라면, 루이 비통과 같은 빅 패션 하우스에서 그동안 향수를 선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에디터 역시 당연히 출사했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사실 루이 비통의 역사에 향수가 이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루이 비통이 첫 향수를 만든 건 1927년으로, '부재의 시간(Heures d'Absence)'을 필두로 이듬해 나, 너, 그(Je, Tu, Il)와 추억(Reminiscences)을, 1946년에는 '여행의 향수(Eau de Voyage)'를 마지막으로 향수를 판매하지 않았다. 루이 비통은 그로부터 70년 만에 다시 향수를 론칭했고, 그 중심에는 자크 카발리에 벨투뤼가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어 조향사로 활약하고 있는 자크 카발리에 벨투뤼가 2012년 메종의 수석 조향사로 발탁된 지 4년 만에 7개의 여성 향수 컬렉션을 선보이며 역사에 감춰져온 메종의 향기를 되살려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 루이 비통은 또 다시 미지의 영역에 발을 내디뎠다. 마지막 향수 이후 70여 년만에 최초로 남성을 위한 다섯 가지 향기를 창조해낸 것. 자크는 이 향장을 공개하기 앞서 전 세계 소수 프레스만을 그만의 공방으로 초대했다.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탄생하는 향이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모든 것의 공방은 이 모든 것이 창조되는, 독창적인 원재료 팔레트가 펼쳐진 곳이었다. 영화(향수: 어느 살인의 이야기) 배경이기도 한 그라스는 전 세계 향수 원료의 70%를 생산하는 향수의 성지라 불린다.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갈 만큼 길이 좁은 이 작은 마을에 루이 비통이라는 거대 럭셔리 하우스의 향수 공방이 존재한다는, 과연 그 모습은 어떨지 궁금했다. 끊임없이 굴욕질을 자니, 위용 있게 뻗은 나무들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철제 문이 자락을 자르고 서 있었다. 그리고 이곳을 통과하니 루이 비통의 상징적인 공방, 폰텐느 파르푸메(Fontaines Parfumes)가 눈앞에 펼쳐졌다. 1년에도 열 몇 번 향수의 주원료가 될 대체로운 꽃들이 자라 피는 발을 지나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건물들 사이로 좀 더 들어가니, 이윽고 자크 카발리에 벨투뤼의 이틀리에가 위치한 바스티드 건물 앞에 자가 멈춰 섰다. 큰 문을 열고 들어가 루이 비통 향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브제지 출판한 공간, 그 뒤로 커다란 창이 위치한 레스토랑을 지나 문을 통해 나그본니 공방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테라스가 있었다. 테라스에 서서 한참 간담하며 사진을 찍고 있으니 등 뒤에서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라며 유쾌한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밝은 미소를 띤 자크의 모습이 보였다. 이 공방을 자신의 집이라 표현하며, 그의 모든 크리에이션이 담긴 곳을 소개하려는 철나,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디올의 수석 조향사를 프레스들에게 소개하는 일



또한 잊지 않았다(현재 폰텐느 파르푸메는 루이 비통과 디올이 공유하고 있다). 첫 인사를 마치고는 이 짧은 시간에도 그만의 푸근하고 유쾌한 카리커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와 함께 그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실험실의 모양새를 갖춘 향이 탄생하는 이틀리에까지 이곳저곳을 탐험한 뒤 점심 식사를 했다. 특별히 한국 프레스를 위해 자크 앞에 마련해준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는 신제품에 관한 고루한 대화기 아닌, 이곳에 와서 직접 느낀 점과 각자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경험한 특별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그는 한국 문화, 그리고 아시아 여성들이 현재 관심이 있어 하는 것에 대해 광장히 공명해줬는데,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나 친밀함을 드러내기 위한 소심함이 아닌 사실은 후에 그와 진정한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다. 인터뷰 중 영감의 원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는 "저는 사람들에게 대해 호기심이 많아요.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를 통해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국가의 음식과 문화를 접한 경험이 쌓여 나만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필요할 때

마다 머릿속에 쌓인 그 기억들을 꺼내보고 싶네"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그는 향수 재료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원재료뿐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 감정 등 모든 걸 몸소 느끼고 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이번 남성 향수를 위해 떠난 여정은 이번엔 선보인 다섯 가지 향에 담아 표현했다고 전했다.

남성의 향으로 표현한 다섯 가지 여정

그와 대화하다 보니 이 향수들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라기보다, 향수 그 자체가 하나의 주인공이라 표현하고 싶었다. 자취사 이미지와 감정, 언어를 지닌 하나의 캐릭터로 말이다. 그렇다면 그가 향기를 통해 표현하고 싶었던 남성의 이미지는 어떠한 모습일까. 자크는 루이 비통의 남성 향수 컬렉션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우리를 안내했는데, 빛을 모두 차단한 캄캄한 방안에서 그는 "어성이 좋아하는 남성용 향수를 만드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라 말하며 '클린과 시크'를 콘셉트로 한 매력적인 다섯 가지 향을 소개했다. 그가 처음으로 소개한 향은 무한한 내면의 여정이라는 뜻을 담은 '리망시테(L'immensité)' 향이었다. 이는 자크가 원재료를 찾아 떠난 여행 도중 마주친 풍광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신뜻한 동시에 스파이시한 날카로움을 지닌 강렬한 향이다. 첫 향은 이제 막 사투를 마치고 나온 남성에게서 느껴지는 은은한 스킨 향을 떠올리게 하며, 자몽 특유의 생시름함이 이어지고, 이산화탄소 추출 기법으로 정제된 생강의 특 쓰는 향과 레몬 향, 베르바니 잎의 푸르름이 광대함을 뜻하는 리망시테라는 이름처럼 글루의 향찬 물결같이 어우러진다. 다음으로 소개한 향수는 '누보 몬드(Nouveau Monde)'로, 코코아의 달달한 향에 방울라테시 농기의 작은 농장에서 재배한 우드 아상 향을 더해 완성했다. 자크는 향을 맡기 전, "이 향은 저의 어떤 사물을 떠올리게 하는 향이예요. 어릴 때 선물 받은 초콜릿 박스를 열었을 때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향이죠"라고 설명했는데, 그의 말대로 코코아 향과 가죽 향, 시프린의 진한 향이 공존해 익숙하면서도 이국적인 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다음은 한국 프레스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오라주(Orange)'로, 여행 중 만난 북풍우의 위력을 표현한 향수다. 자크가 남성 향수에 가장 핵심적인 파츨리를 사용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향이예요"라고 설명한 이 향은 아이리스의 특이한 향에 파츨리 하트에서 향을 분리해 얻은 향취만 남도록 해서 조합했다. 위풍당당하게 대지의 기운을 전하는 특 쓰 파츨리 향이 폭풍우가 휩쓸기 전 번쩍이는 번개를 연상시킨다. 네 번째 주인공은 길 위에서 스스로를 찾는 삶의 여정의 의미를 내포한 '쉬르 라 루트(Sur la Route)'. 여정 그 자체가 목적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자크는 운명을 마주하고자 할 때 느껴지는 특유의 설렘을 향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이 향수에 어린아이의 애착 인형 같은 낙인을 붙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가 애착 향수와 표현한 이 향수는 그가 늘 이끄는 최강의 칼라브리안 시트라스와 사디 향을 결합하고, 레몬 특유의 귀족적 향에서 테르펜식을 정유에 들어 있는 유도체 중 하나를 제거해 펄프와 껍질에 밴 곡자의 청정향을 강조했다. 이렇게 탄생한 특별한 사디 향에 베르바니드, 초록 잎 향을 가미해 자연의 푸르름을 살렸으며, 여기에 가장 특별한 향수 원재료 중 하나인 페루산 발삼을 더해 기묘하고 중독성을 갖춘 향으로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만난 향수는 '오 아저르(Au Hasard)'로, 그는 이 향을 소개하기 앞서 "하직 저에게도 미스터리한 향이예요"라고 코멘트했다. 스코틀랜드의 친환경 농장에서 재배하는 특별한 샌들우드 향을 베이스로 사용했다는 이 향수는 철벽 꼭대기에서 과감히 뛰어내리기 전 고려는 숲, 아성이 아닌 본능을 따르는 것 등 흥미롭고도 강렬한 느낌을 받을 때 몸의 진동을 극대화하는 감각을 오롯이 구현하기 위해 미지의 우주로 떠나는 여정을 상상해 만들어냈다. 크리미하고 밀키한 우디 향에 마스크 향, 노란 팬자꽃을 닮은 우아한 알베르트 싸인 향이 샌들우드의 카리스마와 어우러진 오 아저르는 마음을 살리게 하는 향이며, 감각을 무장해제시키고 어깨에 기대 잠시 쉬어 가리 유혹하는 듯한 향이다. 앞서 말한 이 모든 향은 미니멀리즘의 가장 좋은 산업 디자이너 마크 뉴슨(Marc Newson)이 디자인한, 모든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 간결한 투명 글라스로 만든 향수병에 담겨 각각의 개성을 표현하는 선제한 빛을 발한다. 이처럼 남자라면 누구나 마음속 어딘가 간직하고 있을 자유를 향한 본능과 개혁 정신을 자극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루이 비통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다섯 가지의 특별한 향을 통해 자신을 찾아 나서는 모험을 떠나보길. 문의 02-3432-1854 에디터 이진희 그라스 현지 취재

1 끝없이 펼쳐지는 무한함을 표현한 '리망시테(L'immensité)', 2 루이 비통이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의 탐험에 어울릴 듯한 '누보 몬드(Nouveau Monde)', 3 북풍우처럼 격정적인 향의 '오라주(Orange)', 4 여행의 전율과 카리커가 느껴지는 '쉬르 라 루트(Sur la Route)', 5 난의 설렘을 담은 '오 아저르(Au Hasard)', 6 여행자의 오랜 여정 동안 깨어나 맡아주기 쉬운 소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1920년대에 완성한 호화로운 화장품 케이스, 7 트렁크 메이커에서 출판한 메종이 화장품 케이스 트렁크에 담기 위해 당대 아르데코 아티스트에 의뢰해 제작한 크리스탈 향수병, 8 손님들을 맞이하는 라운지, 9 고구려인 반지 및 와인 항고처럼 맞춤 생강 사물을 갖춘 루이 비통 향수 이틀리에.



interview with Jacques Cavallier Belletrud (자크 카발리에 벨투뤼 · 루이 비통 수석 조향사)



01 좋은 원재료를 구해 몇 가지로 조합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향을 찾아 시각적으로 향에 어울리는 색을 더하는 등, 어찌 보면 조향사는 향을 요리하는 셰프와도 같다. 이처럼 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인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네, 맛이에요. 셰프와 조향사는 최고의 원재료를 찾고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다만 조향사는 실제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추상적인 것까지 하나의 재료로서 요리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베티베르나 파츨리처럼 자연에서 만나는 원재료도 있지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경험이에요. 한마디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그를 통해 경험한 새로운 느낌과 감각이 향을 요리하는 데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이 향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즐기는 것도 바로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02 2012년에 루이 비통 메종에 합류해 지난 2016년 일곱 가지 여성용 향수를 만들어내는 데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다. 그때만 해도 무려 90가지 향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향들이 어떤 남성 향수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제조 과정에서 여성 향수가 남성 향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냐고 묻는다면 물론 그렇습니다. 저에게 남성 향수와 여성 향수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심 개, 수백 개의 향을 조합하면서 느낀 경향이 이미 제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으니, 이번 남성 향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합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지요.

03 이번에 선보이는 남성 향수 5종의 공통된 테마가 있다면 무엇인지? 제가 이번 향수를 통해 표현하고자 한 루이 비통을 대표하는 남성성은 바로 '어린 시크'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시크함이란 루이 비통 패션에서 선보인 실크나 캐시미어 같은 울리터 좋은 소재, 대체로운 색상으로 제작되는 루이 비통 슈즈의 멋진 색감이라고 정의하고 싶군요. 그 때문에 향수병에 적용한 컬러 또한 시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색상으로 프로듀싱했어요.

04 향수를 뿌릴 때 손목에 뿌리고 비비는 행위는 마치 좋은 와인을 잔자리에 담아 들리는 것과 같다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향수를 뿌릴 때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라, 작점은 충격을 받았다. 그 인터뷰에서 추천한 손등에 뿌리는 법 외에도 향을 더욱 잘 느끼기 위한 다른 부위도 추천해달라. 손등만큼 향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부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연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향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전달되는 곳이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에 방문했을 때, 향수를 머리 위 허공에 분사한 뒤 바로 아래 서서 향수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향수를 허공에 그냥 날려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제대로 향을 뿌리기 위해서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길 추천합니다.

05 여행에서든 일상에서든 향으로 표현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면? 영감을 받는 순간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비행하라, 향하라, 여행하라 - 루이 비통) 전시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려볼까요? 전시장 입구에 위치한 미디어 파사드에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마치 물처럼 흐르듯 비행하는 멋진 영상을 봤는데, 이는 저게 새로운 향에 대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물론 미래향을 연상시켰고, 그 미래향은 건조된 나무 향이 될 수도 있으며 또 물은 베르바니나 다른 향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요. 저는 이 이미지를 영감히 간직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미디어 콘셉트에 영감을 받아, 기억 속에 간직한 이 이미지와 합쳐져 새로운 향을 탄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예요. 서울에서 받은 영감을 호텔 방으로 돌아와 아이패드와 공식으로 적어 동료에게 보내고, 공방으로 돌아와 그 공식으로 만든 향을 맡아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공식은 후에 여성을 위한 또는 남성을 위한 향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끝낸 후 그 나라에서 쌓은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기념품과 사진들을 남기는 것처럼, 이러한 공식은 저에게 후각적 기념품, 후각적 사진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06 당신의 부인과 딸에게도 특별한 날 어울리는 향을 조향해준다고 들었다.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벌써 수십 년 전 일이지만, 결혼기념일을 위해서, 그리고 딸들이 태어났을 때 느낀 기분을 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있었지요. 시중에서 절대 구해볼 수 없는, 우리 가족만의 향을 조향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상으로 가족들이 특별하고 행복하게 거저서 제 기분까지 좋아지고 합니다.

07 최근엔 럭셔리 가치를 결정하는 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루이 비통도 향수 원재료를 재배하는 그라스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이 있는지? 물론입니다. 우리는 물론 공급자와 함께 친환경적 재배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신원치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나 중개자나 공급하는 원자재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죠. 루이 비통은 원재료의 근원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시간뿐 아니라 비용도 배로 들지만, 어떻게 재배되는지 모르는 재료나 야초, 혹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만든 원재료는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럭셔리 하우스인 루이 비통의 임무이며, 우리는 올바르게 아름다운 재료를 지켜 나가기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sponsored by LOUIS VUITTON

an exquisite Sense

첫눈에 매료되는 남성의 강인한 매력을 향에 담았다.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선보이는 향수답게 매끄러우면서도
섹시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셀렉트(Select)'가 바로 그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모던하고 세련된 벤츠맨을 위한 향수, 메르세데스-벤츠 '셀렉트'

남자의 진정한 기품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풍기는 것이라든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벤츠 향수는 럭셔리 카의 대명사로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하고 견고한 벤츠의 차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다. 1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벤츠의 핵심적인 상징 역할을 해온 별 로고는 향수 디자인에도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다. 특유의 로고만 봐도 남성의 품격과 부, 권위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기 때문. '셀렉트(Select)'는 이름처럼 첫 만남에서 자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여성과의 짜릿한 순간을 향으로 표현했다. 부드럽고 섹시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벤츠맨의 매력을 향으로 드러낸 것. 묵직한 우디 계열을 베이스로, 첫 향은 스파클링한 베르가모트와 달콤한 커런트의 강렬한 조합으로 시작된다. 이어 페퍼민트와 애플의 프레시하고 아로마틱한 어코드를 연출하며, 마지막으로 머스크와 파출리의 진함으로 마무리된다. 이 향은 강렬한 첫인상에 이어 여운까지 깊은 매력을 발산한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글로벌 팀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한 프라미엄 라인으로, 이전 라인에 비해 향취뿐만 아니라 디자인 면에서 고급스러움을 더욱 부각했다. 특유의 유연한 경사도가 느껴지는 보틀 캡은 절제된 고급 세련을 연상시켜 남성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것이다. 무엇이든 최고를 선택하는 벤츠의 이상적인 남성상을 표현한 이 향을 당신의 남자에게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50ml 7만4천원, 100ml 10만4천원. 문의 02-3443-1805 에디터 이자현

● sponsored by CEO International

smart Skincare

옷 두께만큼이나 얇고 가벼워지는 서머 메이크업에도 당당하기
위해선 피부 본연의 결, 톤, 탄력을 케어하는 것이 필수다.
미세 먼지까지 피부를 괴롭히는 요즘, 피부에 불필요한 것은
말끔히 제거하고, 필요한 영양분은 속속 더해주는 CNP Rx의
PHA 듀오만 있다면 여배우의 투명 피부를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sponsored by LG 생활건강 CNP Rx

1 (왼쪽부터) 스킨 레주베네이팅 밸런스 토너 120ml 5만2천원, 200ml 6만2천원, 스킨 레주베네이팅 미라클 에센스 50ml 9만원, 모두 CNP Rx.
2 CNP Rx의 모델, 배우 이하늬.



"여름철 외출 시에는 주로 가볍게 메이크업을 해요. 이때 건강하게 관리한 피부가 확실히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평소 PHA 토너와 미라클 에센스를 사용하는데, 이 두 제품을 사용한 후부터 피부가 몰라보게 매끄럽고 투명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배우 이하늬

2

서머 스킨케어 위한 PHA 듀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탄력이 저하되고 공돌이 공돌이 현상이 급세 무너진다. 여름 한낮에 직사광선을 15분 정도만 받아도 피부 온도는 40°C 이상을 기록하니, 여름에는 더더욱 피부 고민을 전천후로 케어하는 안티에이징 화장품으로 매일 같이 관리해야 한다. 추천하는 제품은 CNP 화장품의 럭셔리 브랜드 CNP Rx의 대표 아이템이자 PHA 듀오로 꼽히는 '스킨 레주베네이팅 밸런스 토너'와 '스킨 레주베네이팅 미라클 에센스'다. 여름철 피부를 책임질 이 듀오는 피땀갈과 톤, 탄력까지 트리를 케어 가능하다. 특히 성분 PHA Complex를 함유해 피부 속부터 탄력을 채워 근본적인 관리를 도와주기 때문. 수분이나 주름 혹은 탄력 등 하나에 집중한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본연의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동시에 피부 턴오버에 작용해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물론, 미백과 주름 개선 효과까지 갖춘 고기능 듀오인 이 듀오에 다양한 피부 고민을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채우는 스킨 안티에이징

피땀갈과 톤, 탄력,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트리를 케어의 시작은 각질 제거와 수분 공급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핵심은 피부에 필요한 수분과 유분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각질이 쌓이지 않게 케어하는 것. '스킨 레주베네이팅 밸런스 토너'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상태로 피부 턴오버를 촉진함으로써 피땀갈을 균일하게 정돈해주는 아이템이다. 이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더해줄 '스킨 레주베네이팅 미라클 에센스'는 피부 턴오버를 촉진하고 탄력을 높여주는 데일리 안티에이징 에센스로, AHA나 BHA보다 더욱 진화된 PHA Complex 성분이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동시에 피부 속부터 탄력을 증진시키는 더블 케어를 통해 피부 생기와 광채를 찾는다. 이 듀오만 있다면 전문가에게 관리받은 듯 빈틈없는 피부를 만끽할 수 있다. 문의 080-023-7007 에디터 권유진

여배우의 미세먼지 3D 솔루션

뷰티 전문 프로그램 (겟 잇 뷰티) MC였고 CNP Rx의 뮤즈인 이하늬는 '3D 솔루션'이라는 자신만의 뷰티 케어법을 소개했다. 이하늬가 전한 3D 솔루션의 첫 번째 뷰티 스텝은 바로 집중 피부 정화 케어 단계인 디폴루션(D-Pollution). '스킨 레주베네이팅 인텐티브 필 & 토너'를 사용한 신개념 각질 케어 단계다. '스킨 레주베네이팅 인텐티브 필'은 AHA와 PHA를 최적의 비율로 처방한 스페셜 각질 케어 제품으로 3개월 동안 주 1~2회 사용으로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 다음에는 '스킨 레주베네이팅 밸런스 토너'를 바를 차례. 클렌징 후 화장실에 묻혀 닦아낸 잔여 노폐물이 제거되는 동시에 촉촉한 보습 공급까지 해결한다. 두 번째 스텝인 디스트레스(D-Stress) 단계는 피부 턴오버를 촉진해 건강한 피부로 되돌리는 시간이다. '스킨 레주베네이팅 미라클 에센스'를 발라 노폐물과 각질을 자극 없이 탈락시키고 탄력 증진과 pH 밸런스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마지막 스텝인 디펜스(D-Defence)는 빈틈없이 막아주는 피부 보호막을 만들기 위한 단계다. 스킨 스크린 울 마스터 선블럭력으로 자외선과 미세 먼지를 차단하는 것. 자극 없이 촉촉하게 피부를 보호해주고 미세 먼지 흡착 방지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

(왼쪽부터) 스킨 레주베네이팅 인텐티브 필 5mlx12 1만9천원, 스킨 레주베네이팅 미라클 에센스 50ml 9만원, 스킨 스크린 울 마스터 선블럭력 50ml 5만8천원, 모두 CNP Rx.

editor's Pick

연이어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 중 <스타일 조선일보>가 추천하는, 꼭 써줘야 할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소프 프로텍티브 페이스 로션 SPF 30** 자외선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요즘, 매일같이 로션처럼 바를 수 있는 데일리 자외선 차단제로 추천한다. 가볍고 산뜻한 수분 로션 타입으로 UVA, UVB 자외선을 흡수하는 화학적 필터를 적용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더불어 항산화 성분도 그런데, 토코페롤을 풍부하게 함유해 바르고 있는 동안 스킨케어 효과 또한 특별히 볼 수 있다. 60ml 2만3천원. 문의 1800-1987 *_by 에디터 권유진*

어디든 아이리니니 펜슬 09 아주 부드러운 펜슬 타입의 유태프루프 아이리니니로, 매우 쉽게 그릴 수 있다. 유태는 모양으로 알고 균일하게 그려지며, 피부에 충동하게 밀착되어 시간이 흘러도 뭉치지 않는다. 짙은 브라운 컬러라 또렷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심어준다. 0.3g 2만9천원.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이지연*

나스 에프티글로우 펄빙 오르기름 은은한 광택과 화사한 미러미러로, 립스틱과 립밤의 두 가지 매력 모두 갖췄다. 나스 특유의 자연스러운 발색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추천한다. 3g 3만2천원. 문의 02-6905-3147 *_by 에디터 배미진*

데코르테 하나뉴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유기농 꿀로 코팅해 촉촉한 사용감을 선사하는 클렌징 오일. 두꺼운 메이크업과 여름철 끈적이는 자외선 차단제를 자극 없이 풍부한 질감으로 클렌징해준다. 모공 케어까지 해주니 일석이조. 177ml 3만9천원.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배미진*

클라린스 포 컬러 올인원 펜 이 제품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건, 사용하던 4색 볼펜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유태 넘치는 아이들의 왕도는 그림이 아닌, 아이, 립, 눈썹까지 모두 메이크업할 수 있는 올인원 펜 아이브로 펜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딥 블랙 컬러 아이라이너와 함께 눈가에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블루, 그린 컬러의 아이라이너, 그리고 입술을 물론 볼러서도 활용할 수 있는 로즈 우드 컬러의 펜슬을 모두 담았다. 4인3천원. 문의 080-543-9052 *_by 에디터 권유진*

루이 비통 오라쥬 향수 루이 비통에서 새로 출시한 남성 오 드 퍼퓸. 우드와 파슬리 향이 지배적으로, 밑줄수록 매료되는 감미로운 향이 코끝을 휘감고 시간의 흐름에서 전율하는 마스크 향으로 마무리된다. 여성이 사랑하는 가장 매력적인 남자의 향이 아닐까. 100ml 3만9천원. 문의 02-3432-1854 *_by 에디터 이지연*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리브드 립 #300 만다린 애플 향을 비틀 웨이퍼에 매치할 핑크는 이제 피부색을 화사하게 살려주는 촉촉한 유태는 오렌지 컬러로 비커에서 태닝 피부에 비르던 단단 톤보일 만한 립 컬러가 미끈, 식욕, 맑고, 아시아에 비를 함유한 오일 성분인 인공 유리아미노산 촉촉하고 반짝이게 연출해줄 뿐만 아니라 끈적이지 않는 가벼운 텍스처와 여러 번 덧칠해도 무거운 느낌이 없이 더욱 만족스럽다. 6ml 2만9천원. 문의 02-3440-2772 *_by 에디터 권유진*

사슬리 이드라 글로벌 세럼 비르자마자 피부 깊숙이 수분을 전달하는, 사슬리를 대표하는 안티에이징 수분 세럼. 텍스처, 향기, 수분 전달력 등 모든 면에서 만족을 주고 있다. 수많은 여성들이 꾸준히 사슬리의 스킨케어를 선택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하는 제품. 30ml 2만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배미진*

제스펠 프라페어팅 크림 국내 최고의 이스트 손데카와 박테리아 항균 케노즈 메릭 브랜드 제스펠의 로보틱인 수분 공급과 피리피리 기능을 모두 갖춘 크림. 바르자마자 표면을 채워주는 탄탄한 텍스처가 피부를 다시 매끈하게 한다. 강력한 보습력으로 나이트 크림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이다. 까리모에 메이 크립 이스트들이 만든 만큼 더욱 믿을 만하고 가격도 합리하다. 80g 4만2천원. 문의 070-4407-7933 *_by 에디터 배미진*

라 메르 쿠마니스 리프팅 쿠션 파운데이션 SPF 20 이젠 하이엔드 뷰티 브랜드에서도 쿠션 팩트를 선보인다. 기적의 크림이라 불리는 라 메르의 아이코닉한 크림 드 라 메르의 영양과 수분감을 가득 담은 산뜻하고 가벼운 포물라가 특징. 쿠션을 톡톡 두드릴 때마다 파자는 특유의 고급스러운 향하는 물론, 강력한 커버력까지 갖춰, 피부를 매끄럽고 투명하게 연출할 수 있다. 12gX2리플 포맷 14만5천원. 문의 02-3440-2775 *_by 에디터 이지연*

베네프트 고고인트 핫한 채리 컬러가 매력적인 립 & 치크 제품. 가벼운 재형이 입술과 양 볼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연출해주는 것은 물론, 지속력까지 뛰어나다. 생키 넘치는 핑크로 화사한 데일리 메이크업부터 촉촉 핑크는 과감 메이크업까지, 다양하게 연출해볼 것. 10ml 4만5천원. 문의 080-001-2363 *_by 에디터 권유진*

모로칸오일 맨딩 인퓨전 방금 솜에서 꺼냈을 듯 촉촉한 보습을 즉각적으로 부드럽게 복구하는 획기적인 보습 교정 아이템이 등장했다. 건조하고 갈라진 보습 끝이나 골수기에는 마리에 비르던 갈라진 보습을 깔끔하고 부드럽게 해주어 헤어 솜에서 편리한 듯 촉촉해지는 머릿결이 탄생하는 것. 보습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로마 오일, 판테놀, 비오비브 추출물, 카노아 등을 함유해 보습 전체, 또는 건조한 부위에 꾸준히 사용하면 자꾸만 건조하고 심은 건조한 보습도 가질 수 있다. 75ml 3만6천원. 문의 1666-5125 *_by 에디터 권유진*

필로스티 티보 뷰티 C 파우더 몸이 피곤할 때 비타민 한 알을 먹듯이, 지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고품축 순수 비타민 C 파우더를 더해보자. 보습 피부에 바르는 비타민은 고농축 생체 성분으로 생체인데, 이 제품은 파우더 형태로, 평소 사용하는 로션 타입이 더 크거나 에센스에 이 비타민 파우더 한 스푼을 넣어 섞어 사용하면 된다. 즉각적인 피뭉칠 개선은 물론 윤기를 더해줄 것. 7.1g 6만5천원. 문의 02-548-0511 *_by 에디터 이지연*



BEAUTY



CNP Rx 스킨 레주버네이션 밸런스 토너 CNP Rx는 미세 먼지와 자외선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지극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스킨 레주버네이션 밸런스 토너'의 대용량 제품을 출시한다. PHA Complex 복합 스킨케어 성분이 각질을 제거하고, 피뭉칠을 촉촉하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피부에 탄력을 채워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문의 080-023-7007

메르세데스-벤츠 클럽 블루 메르세데스-벤츠는 세련된 남성을 위한 '클럽 블루' 향수를 추천한다. 청량한 딥 블루 컬러와 실버의 조화가 돋보이는 보틀에 더욱 깊어지고 풍부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취를 담았다. 다가오는 여름과 잘 어울리는 나만의 향수를 찾고 있다면, 클럽 블루에 주목해볼 것. 문의 02-3443-1805

LIFE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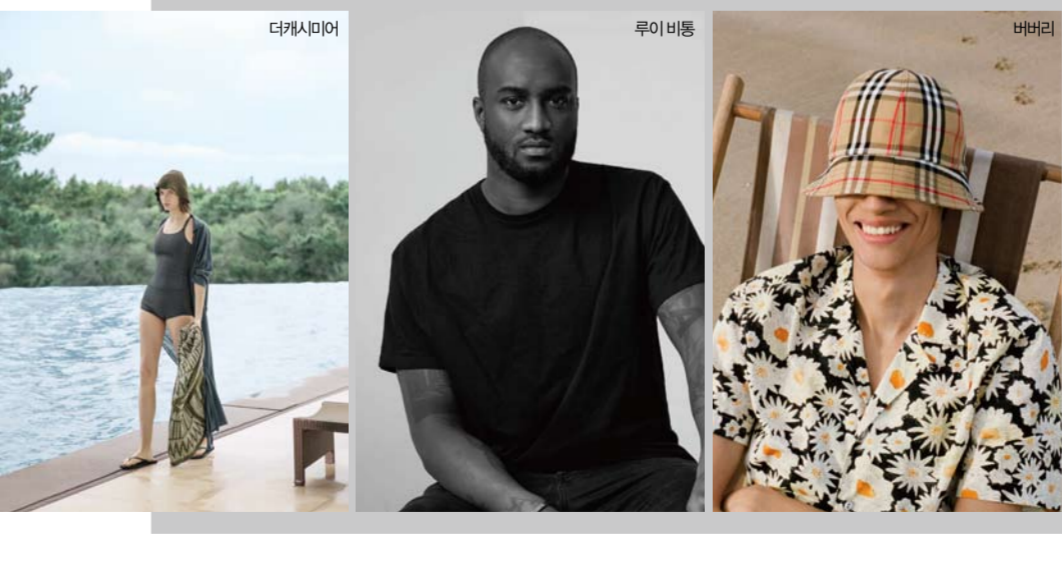
시몬스 시몬스 갤러리 잠실점 오픈 시몬스는 일곱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시몬스 갤러리' 잠실점을 오픈했다. 총 3층 규모의 공간에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감각적인 시몬스 룩을 선보이며, 브랜드 스토리와 숙련된 기술력을 뒀던 브랜드 체형형 공간 배치와 슬림마스터의 수면 큐레이팅 서비스로 수면 전문 브랜드다운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문의 1989-8182

FASHION

루이 비통 남성 컬렉션 이스트닉 데일리 버질 아블로 발작 루이 비통은 새로운 남성 컬렉션 이스트닉 데일리로 버질 아블로를 발작했다. 오프 화이트, 핑크 등 다수 브랜드와 패션,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아블로의 첫 루이 비통 남성 컬렉션 패션을 선보이는 6월 파리에서 열리는 남성 컬렉션 패션 위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432-1854

데카시미어 스웬웨어 데카시미어는 다가오는 서머 시즌을 맞아 '스웬웨어' 컬렉션을 출시한다. 스판을 혼방한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이탈리아 수인 원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톤은 뒤틀면서 X자로 교차되는 솔더 스트랩이 특징이며, 다크 그린, 세피아, 크림 등 3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하이웨스트 쇼츠는 다크 그린, 세피아 등 2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3416-4397

샤넬 2017/18 파리-함부르크 팝업 개회 샤넬은



JEWEL&WATCH

오메가 트러저 행사 개최 오메가는 지난 5월, 베를린 크라프트베르데에서 '트러저' 행사를 개최했다. 빛과 음악으로 가득 채운 공간에서 클래식한 디자인에 모던한 디테일을 가미한 새로운 트러저 워치 컬렉션 전시를 비롯해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양행사터 카이아 가버를 포함해 많은 셀러브리티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문의 02-511-5795

파이에 알티플라노 워치 파이에는 눈부신 터키어즈 다이얼이 매력적인 알티플라노 워치를 공개했다.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4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풍격을 더했으며, 특별한 서머 룩을 연출해줄 강렬한 터키어즈 블루 알티플라노 터지 스텝이 돋보인다. 문의 02-540-2297

반클리프 아펠 알함브라 컬렉션 탄생 50주년 반클리프 아펠은 행운의 네 잎 클로버에서 영감을 받

은 알함브라 컬렉션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부드럽고 우아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새로운 제품을 공개했다. 다이아몬드와 라피스 라줄리, 라크 스텝 등 눈부시게 빛나는 우아한 소재와 컬러의 조화가 돋보이는 흥 네그리스, 브레이슬릿, 아이핀으로 구성된다. 문의 00798-852-16123

까르띠에 팬더 드 까르띠에 워치 까르띠에는 한층 여성스러운 실루엣으로 재탄생한 팬더 드 까르띠에 워치를 선보인다. 손목을 우아하게 감싸는 미니 사이즈의 트리를 투여 브레이슬릿과 스몰 사이즈의 더블 투여 브레이슬릿으로 출시하고,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핑크 골드의 3가지 소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66-7277



SHOWROOM

루이 비통 남성 컬렉션 이스트닉 데일리 버질 아블로 발작 루이 비통은 새로운 남성 컬렉션 이스트닉 데일리로 버질 아블로를 발작했다. 오프 화이트, 핑크 등 다수 브랜드와 패션,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아블로의 첫 루이 비통 남성 컬렉션 패션을 선보이는 6월 파리에서 열리는 남성 컬렉션 패션 위크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432-1854

로로피아나 린넨 트레블러 재킷 로로피아나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겸비한 린넨 트레블러 재킷을 출시한다. 레인 시스템® 처리로 발수 기능이 뛰어나며, 가볍고 실용성이 높아 레저와 여행을 즐길 때 가장 이상적인 아이템. 라인업 깔끔한 디자인으로 정장 재킷 대용으로도 착용할 수 있어 출장 시에도 제격이다. 문의 02-546-0615

구찌 피아라 핸드백 구찌는 2018 프리폴 컬렉션에서 동시대적 감성의 피아라 핸드백을 선보인다. 동물 모티

브를 조합한 핸드백으로, 브랜드의 아가에서 영감을 받은 골드 스트라이프와 더블 G 프린트, 플레인 레디의 결합이 특징. 넉넉한 수납공간과 2가지 컬러를 믹스한 몰드 솔라 코스-스트랩 디테일로 포인트를 더했으며, 3가지 컬러로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1577-1921

콜로에 소녀 스니커즈 콜로에는 다양한 소재가 어우러진 '소녀 스니커즈'를 선보인다. 2가지 컬러를 믹스한 몰드 솔라 코스-스트랩 디테일로 포인트를 더했으며, 하이탑 스니커즈와 클래식한 러닝 슈즈, 2가지 스타일로 출시된다. 나일론, 스웨이드, 메쉬, 네오프렌 등 다양한 소재를 믹스해 스포티하면서도 트렌디한 룩을 완성한다. 문의 02-543-1737

